

Social Economy
Teaching Learning Material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경제 표준 교육안 개발 연구』(2019)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교재 및 교수·학습 과정안입니다.
- 본 교재는 성인 학습자 대상 사회적가치 이해 도모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입문 교육 운영 시 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차시마다 교육 매뉴얼과 토론 주제가 함께 구성돼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교육 동기와 목표 등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목차 CONTENTS

1강. 왜 사회적경제인가?	05
1.1 우리의 필요와 욕구들	07
1.2 필요의 성격에 따라 사회와 분업의 모습도 달랐다	07
1.3 우리 시대의 주요 사회문제들	10
1.4 사회적경제에 의한 사회문제들의 해결	11
2강.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15
2.1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	17
2.2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	20
2.3 철학과 역사로 보는 사회적경제	24
3강. 사회적경제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어떤 해법을 주는가?	29
3.1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안전망	31
3.2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복지정책	31
3.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33
4강. 사회적경제는 살기 좋은 지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39
4.1 사회적경제, 지역 그리고 공동체	41
4.2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42
4.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의 성공 사례들	43
4.4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목적별 지역기반 활동들	47
5강.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51
5.1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	53
5.2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적·법적 형태들	54
5.3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	60

6강.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제도와 정책은?	63
6.1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65
6.2 사회적경제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68
6.3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74
7강.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가?	77
7.1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79
7.2 당사자조직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	82
7.3 관련 법률과 조례	87
8강.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마음가짐과 역량이 요구되는가?	91
8.1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	94
8.2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95
부록. 교수·학습과정안	97

1강

왜 사회적경제인가?





주 제	1강. 왜 사회적경제인가?
교육목표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들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사회적경제 입문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돕는다.
세부목표	• 인간이 사회를 통해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이해한다. • 공동체, 시장, 정부의 작동원리 및 장단점을 이해한다. •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1.1 우리의 필요와 욕구들

필요와 욕구

- 필요(必要, needs) :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것들
- 욕구(欲求, wants) :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요구되는 것들
- 두 경우 모두 인간의 주체적 의지가 작동 ⇒ 양자 모두를 욕구로 부르는 경우도 많음
- 욕구가 행동으로 연결될 때 ⇒ 동기(motive) or 동인(drive)
- 인간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황에서 평형상태를 회복
-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훌륭하게 채워가는 과정 ⇒ 진정으로 '행복한 삶'
- 필요와 욕구를 집단적으로 충족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형성되었고, 문명도 발전

1.2 필요의 성격에 따라 사회와 분업의 모습도 달랐다

- 인간의 경제활동은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출현
- 사람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물질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였는데, 이때, 충족시켜야 할 필요와 욕구가 얼마나 빈번하게 출현하는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구되는지 등에 따라 적합한 사회 형태가 달라졌음

- 아이를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며 빨래를 하는 등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욕구는 가족에 의해 가장 잘 충족
- 하지만 많은 식량의 생산을 위해 목초지나 수로를 관리해야 할 필요는 마을이, 지역의 치안이나 도로의 유지·보수에 관한 필요는 도시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흉년이나 홍수에 맞설 필요는 국가가 가장 적합한 사회 형태였을 것임

- 또한 각각의 사회형태에 따라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제적 역할을 분담하고 생산물을 나누는 방식도 달랐음

-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벌였고, 복잡한 노동분업의 체계를 만들었음
- 수렵·채집·농경·유목·제작·제조·교역과 같은 각종 경제활동이 벌어졌고, 가정·마을·조합·국가·시장 등 경제활동의 거점이 되는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출현했음. 사람들은 이들 조직 속에서 각자 맡은 바 직분(職分)을 담당하면서, 복잡한 노동분업망의 일부가 되었음

‘사회적 인간’과 ‘공동선’의 달성

‘사회적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

- 인간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갈망하는 존재로, 희로애락 중 많은 부분은 관계 속에서 형성
- 사회 속 인간은, 고유한 정체성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이지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빚어가는 존재
- 사람들의 가치관과 취향은 각자의 고유한 유전자나 내면적 특성의 산물이지만, 주변 사람들도부터도 영향을 크게 받음. 그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 정치적 신념이 다를 수 있고, 어떤 이웃과 함께 살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며, 어떤 동료와 일하는가에 따라 생산성도 변화할 것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 사회는 사람들의 무리들로, 개별 구성원들의 특성을 합쳐 놓은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특성들을 가짐
- 같은 사람이더라도 처한 환경에 따라 친절할 수도, 무례할 수도 있으며, 그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에 따라 좋은 사람들도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고, 나쁜 사람들도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 ⇒ 출현적 속성

좋은 사회란 구성원들이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합심하는 사회

- 사회의 임무 또는 사명은 공동선(common good)의 달성에 있다. 즉, 공동선이란 나와 너, 곧 우리 모두의 이익이 커지는 상황, 전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상황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스테파노 자마니에 따르면,

- 전체선(total good)은 개인선(individual good)들의 더하기 형태 : $(g_1 + g_2 + g_3 + \dots)$
- 공동선(common good)은 개인선(individual good)들의 곱하기 형태 : $(g_1 \times g_2 \times g_3 \times \dots)$

-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서는 나의 이익, 곧 사익(私益: private interest)과 나와 너를 포함한 우리의 이익, 곧 공동의 이익(共益: common interest)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물론 특정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넘어서는 전체의 이익, 곧 공익(公益: public interest)에 대한 고려도 같이 중시될 필요가 있음
-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서는 배신이나 기회주의의 풍조를 몰아내는 것이 중요 ⇒ 구성원들의 좋은 행동을 독려하고, 나쁜 행동을 억제토록 하는 규칙의 마련 및 집행이 특히 중요

사회를 지탱하는 세 축: 공동체, 시장, 국가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시키는 핵심 제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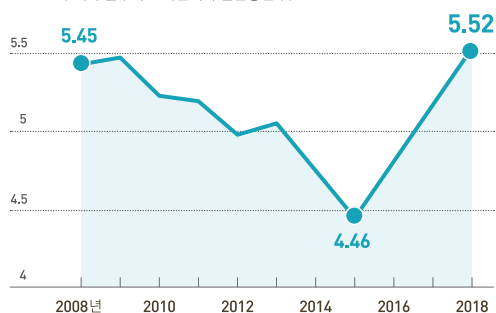
- 경제학자인 라구람 라잔은 사회를 지탱하는 세 기둥이라고 표현
 - 경제인류학자들에 따르면, 공동체·국가·시장은 상이한 작동원리에 의해 움직임
- 공동체(community)는 호혜(reciprocity)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때 호혜적 교환의 기능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확인하고 유지하며 발전 시키는 것. 직접 교환하는 형태, 교환의 형태는 비공식적이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는 되돌려주어야 하는 호혜적 의무를 수반
 - 국가(State)의 역할은, 폭력을 통제하고 법률을 집행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재분배(redistribution)의 원리를 활용,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
 - 시장(Market)은 사람들이 공동체나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서로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공간으로서, 등가교환(equal exchange)의 원리를 활용. 서로 속이지 않으며 주고받는 것의 가치가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 흥정과 경쟁을 벌임

	시 장	국 가	공동체
추구하는 가치	효 율	형 평	우 애
교환 원리	등가교환	재분배	호 혜
중심 주체	영리기업	정 부	가족, 이웃

우리 시대의 주요 사회문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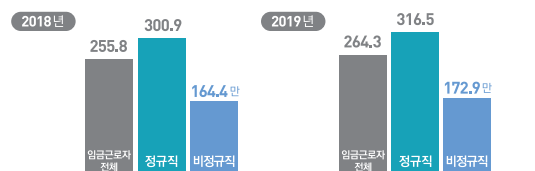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추이

※ 전국 2인가구 이상, 3분기 기준
 ※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냄.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 3개월 (6~8월)간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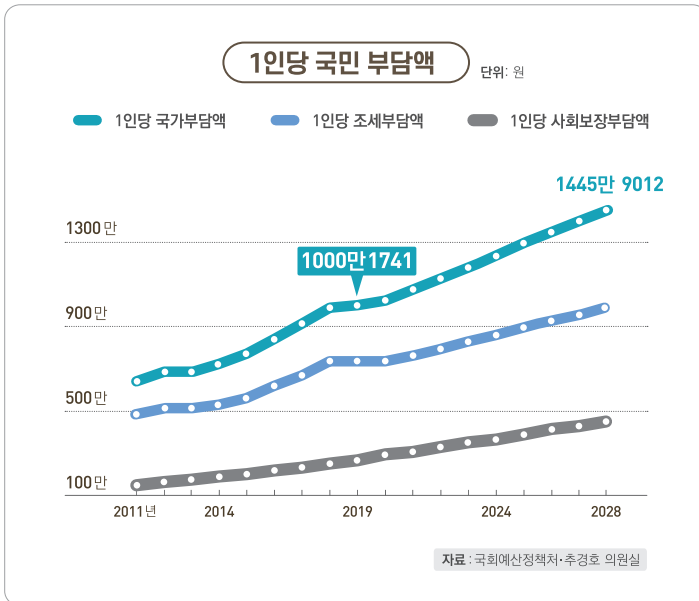


■ 평균근속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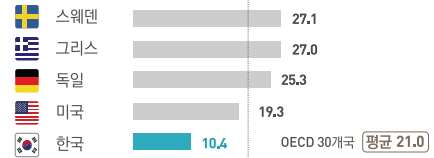
	2018년 8월	2019년 8월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임금근로자 전체	6년 1개월	5년 11개월	69.5%	75.5%	70.9%
정규직	7년 9개월	7년 10개월	87.5	91.5	87.2
비정규직	2년 7개월	2년 5개월	37.9	48.0	44.9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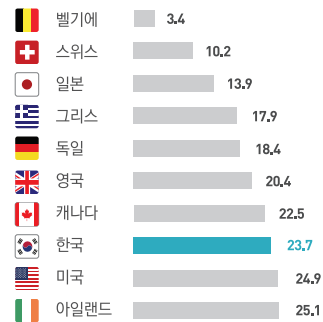
1.3 우리 시대의 주요 사회문제들



■ OECD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비중 (단위: %, 명목 GDP대비, 2016년 기준)



■ OECD 국가 저임금 근로자 비율 (단위: %, 2014년 기준)



※ 저임금 근로자: 전체 임금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근로자. 자료: OECD

우리 시대의 주요 사회문제들

- 비정규직의 증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나쁜 일자리
-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업환경
- 구조적 실업의 확대
-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치솟는 복지비용
-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 육아·보육·간병·의료비용 증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
- 지방소멸과 지역경제의 쇠퇴
- 지역격차 확대와 공동체의 해체
- 악화되는 환경과 위험사회의 본격화



1.4 사회적경제에 의한 사회문제들의 해결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적경제”의 이름으로 공동체, 시장, 시민사회, 국가의 협력 속에서 새롭게 전개
-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치솟는 복지비용,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 “노동통합형 일자리 창출”
-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영세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업환경, 구조적 실업의 확대 문제 ⇒ “좋은 일자리 창출”
- 육아·보육·간병·의료 등 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 문제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 지방소멸과 지역경제의 쇠퇴, 지역격차 확대와 공동체의 해체, 악화되는 환경과 위험사회의 본격화 문제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노동통합형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들이 만들어 가는 더 나은 세상, 베어베터

- “Bear makes the world better.”
- 직원 80% 이상은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 재구성
- 소프트웨어 및 IT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기업들이 고객
- B2B인쇄업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 베이커리 사업부, 커피 사업부
- 199명 고용, 연매출 50억 이상



경제적 약자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

경제적 약자들이 자조와 협동의 힘으로 대자본 제과점에 맞서는 동네빵네협동조합

- 2014년 서울시 은평구와 서대문구 소재의 11개 제과점이 협동조합을 설립, 고가의 기기를 공동으로 구입 & 도우 등 원자재를 공동생산, 빵 레시피를 공유 ⇒ 경제적 약자들의 자조와 협동의 힘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도 성공
-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공장을 세우고, 각자 매장에서는 수량이 너무 작아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을 공장에서 반제품 및 완제품 방식으로 생산해 각 매장으로 공급함으로써 품질의 고급화 및 비용 절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
- 프랜차이즈협동조합으로 발전



양질의 관계형 사회서비스 제공

부모와 아이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육아, '해와 달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 2005년 서울시 상도동에 개원, 4살부터 7살까지 자녀를 둔 37가구가 현재 조합원으로 활동 중.
40명의 원아를 영양사를 포함해 9명의 보육교사들이 돌봄
- 교육은 보육교사가 책임지고,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부모 조합원들이 맡는 것이 원칙
- 연간 운영비는 약 3억 원. 부모들은 한 달 평균 35만 원 (누리과정 지원금 제외) 정도의 보육비를 내는데, 교사들의 급여와 급식비 그리고 1년 동안 조합 차원에서 치러지는 각종 행사비는 조합비로 충당
- 아이중심의 교육철학, 친환경급식, 경로당·생협·의료사협·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지역자원 연계 등도 공동육아의 장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 지역사회의 복원

혁신적 주택정책 & 느슨한 공동체 실험의 만남, 위스테이

- 현재 공공이 지원하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위스테이'가 사회적기업 '더함'의 주도로 진행 중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사업 1호,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에 49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 중)
- 기존 아파트보다 20% 정도 저렴하고 커뮤니티 공간도 2~3배 넓음.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거부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를 지향, 입주자들은 커뮤니티 공유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직해 육아·교육·의료·먹거리·문화·취미 등을 함께 할 수 있음
-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를 통해 호혜와 협동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주거복지 모델이자 생활공동체의 실험



토론하기

- 여러 사회문제들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사회적경제 조직체들 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씩 고르고, 왜 인상적이었는지, 그 사례가 해결하려는 사회문제에 대한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봅시다.
-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강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주 제	2강.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와 핵심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을 알아보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인문학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관한 각자의 상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고 핵심 키워드들을 검토한다.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에 관해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역사와 철학을 통해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가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경제라는 주장의 의미를 살펴본다.

2.1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

열거하는 방식에 의한 정의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일부 비영리조직이나 재단 등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로 정의하는 방식

추구되는 가치 및 원리에 기초한 정의

- 사회적경제가 표방하는 가치 및 이들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원리들을 준수하는 사업체나 조직체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라고 정의하는 방식

※ 보다 바람직한 정의는,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기구나 법체계에서의 정의도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음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규정된 사회적 경제 정의

-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유승민 의원 대표발의(안)]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특성

상호성, 공익성, 이익 분배 제한, 사업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조직의 자율과 독립 등



사회적 목적의 추구



핵심적인 수단 또는 운영 원리들

사회적경제의 핵심 구성요소들

상호성(mutuality)

- 정서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상황
-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조(self-help)와 연대(solidarity)의 노력
- 경제적 약자들의 경우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자각 위에 서로 힘을 합쳐 나와 너, 곧 우리의 공동 이익(共益)을 같이 추구하려는 집단적인 공동행위의 시도 ⇒ 상호성의 원리
-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제시한 정의 중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킨다”는 내용이 상호성을 의미

공익성

- 사전적 의미: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
- 공익(公益, public interest) : 여러 사람에 두루 관계되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의미
- 공익(共益, common interest): 공동의 이익을 의미
- 공공(公共)의 이익 : “국가나 사회의 일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거나 공동으로 속하는 것”의 이익을 의미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성과 공익성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들 조직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목적이 현실에서 충실히 달성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운영 원리들의 역할이 절대적
- 대표적인 운영 원리들로는 잉여금 분배 제한, 민주적 통제, 자율과 독립

잉여금의 분배 제한

- 잉여의 분배에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적이 투자자의 자본에 기반한 수익 창출이나 영리 추구가 아닌 상호성과 공익성의 추구에 있다는 것을 의미
-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영리인가 비영리인가’가 아니라 해당 조직에서 발생한 이익을 개인별로 회수해 사유화하는 쪽과 조직의 공동자산으로 만들어 함께 이용하는 쪽(자본 출자자의 이익에 제한)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하는가에 있음

민주적 통제

- 이익 분배를 금지하더라도, 임직원과 같은 해당 조직의 내부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더 치중하는 등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위험이 상존 ⇒ “민주적 통제에 기반한 지배구조” & “참여와 신뢰를 독려하는 문화” 필요
- 민주적 통제와 이해당사자 (stakeholders) 들의 적극적 참여는 사회적경제 사업체들과 전통적인 비영리조직 사이의 결정적 차이
- 민주적 통제가 특히 강조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협동조합임. 그런데, 주식회사나 농어업법인 등의 법적 형태를 띠고 구성원들이 1인1표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체 속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공공선을 키우고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적 활동임

자율과 독립

- 사회적경제가 본연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상호성,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 ⇒ 정부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함
-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연대와 협동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체 ⇒ “당사자성, 자발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함 ⇒ 이러한 원칙이 운영 원리로 구체화된 것이 자율과 독립
- 자율과 독립이 중요하게 부각된 배경
 - 산업혁명 전후 : 사회적·경제적 약자들로 대표되던 당사자들과 사회개혁가들에 의해 주도되던 일종의 자율적 프로젝트 ⇒ 사업의 내용과 형식이 그 주도자들에 의해 통제(정부 재정 지원, 제도적 도움 X)
 - 1980년대 전후 : 복지국가의 위기, 사회적경제가 정부를 대신해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 공급 or 일자리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 받음 ⇒ 정부 보조금 대량 유입 ⇒ 정부 지원에 대한 종속성▲, 내부 구성원들의 자발성이나 헌신성▼, 사회적 목적 달성보다 정부 보조금 확보에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투입 ⇒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도 훼손되는 문제점이 발생
- 국가나 정부 뿐 아니라, 재정 및 운영과 관련해 특정 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자율과 독립의 원리로 표현

2.2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

협력(協力: cooperation)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 행동
 - 정치·군사적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는 일, 직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협업하는 행위, 구매자와 판매자가 물건을 사고파는 행동, 지역 내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협력
- 협력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기여하는 사람들, 곧 협력자가 있는 반면,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협력의 열매만 가져가려는 무임승차자도 있음
- 집단 내에서 무임승차자 ↑ ⇒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파이는 ↓, 협력 ↓
-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 첫째, 대규모 집단 속에 소규모 집단들을 만들어 익명성을 낮추는 방법
 - 둘째, 무임승차자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방법
-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정체성과 개인의 개성 사이에 조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 ⇒ 이와 관련해, 특히 강조되는 것이 결속감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

- 베르너 귀스(Werner Güth)는 1번 피실험자에게 10달러를 주고 짝인 2번 피실험자에게 일부를 나눠주도록 하며, 짝이 그 제안을 받으면 둘은 제안만큼 현금을 나눠 갖는 것으로, 짝이 그 제안을 거절하면 둘다 아무 것도 못가는 상태로 종료되는 게임을 시행했다.
- 이때, 1번의 행동, 곧 불로소득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는 협력 또는 이타성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으며, 2번의 행동은 이타적 징벌의 척도로 해석 가능하다. 제안에 대한 거절은,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공정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응징이자 협력을 거절하겠다는 의사인 셈이다.
- 선진국 대학생들이 피실험자인 실험에서는 42~48%가 제안된 반면, 전세계 평균값은 25~57% 사이였다. 이 실험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수렵채집 라말레라 족이 불로소득의 57%를 제안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관대한 성향을 보였다.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

우정(友情: friendship)

- 사회적 상호작용의 하나로,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장기적으로 상호 애정 및 상호 지원을 행하는 관계
- 교환 기반 관계는 기본적으로 티포탯(tit-for-tat), 곧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관계, 받는데로 주는 관계 ⇒ but, 우정은 각자가 친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상호부조나 유용성)가 아니라 상대에 관해 어떻게 느끼는지(상호적인 호감이 나 호의)에 바탕을 두는 것
- 사회적경제는 우정의 기풍을 곳곳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기존의 경제를 인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
- 인간이 우정이라는 장치를 발전시킨 이유를 진화심리학자들은 “은행가의 역설(banker's paradox)”에서 찾음(대출을 가장 필요로 상황이 되면 정작 은행은 대출을 가장 꺼리는 것)
-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비용이 크지 않을 때 그를 실제로 돕고 그러한 도움이 나중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보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모두에게 유용할 것 ⇒ 시간이 흐른 후에도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기 위해서 서로가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감정을 진화적으로 가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우정
- 우정은 상호부조 및 사회적 학습의 목적에 봉사함 ⇒ 사회적경제는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의 힘으로 충족시키는 삶의 터전이자 우정을 키우는 장소

호혜(互惠: reciprocity)

- 양편이 서로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일
- 우정에 비해서는 친밀도가 덜하지만, 반복적인 접촉을 되풀이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식적인 상호부조 활동. 근접성과 대면성이 강조되는 활동
- 호혜적 교환 : 어떤 사회적 유대나 의무로 맺어진 사람들이 물자와 용역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여기에는 보통 화폐가 개입되지 않고 공급과 수요가 작용하지 않으며 흥정도 없음(교환의 형태는 비공식적, 받은 것에 대해서는 되돌려주어야 하는 호혜적 의무를 수반)
- 사회적 유대관계의 친밀도에 따른 호혜성 구분(마샬 살린즈, Marshall Sahlins)
 - 일반적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 : 상대방에게 물자와 용역을 주되 그 종류와 양 또는 가치를 계산하거나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등량등가(等量等價)로 되돌려 값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호혜성.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받은 혜택을 되돌려 값는 것이 보통임
 - 균형적 호혜성(balanced reciprocity) : 등량등가 교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되돌려 값을 때에는 그 종류의 양과 가치를 대등하게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관습과 도덕에 따라 정해짐
 - 부정적 호혜성(negative reciprocity) : 상대방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호혜성. 그러므로 이런 교환의 당사자 쌍방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ex)에누리 흥정

연대(連帶: solidarity)

-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타협이나 단결을 통해 더 큰 힘을 얻는 행위를 지칭
- 연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서도 행해질 수 있으며, 호혜에 비해 대면성과 근접성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연대의 종류(에밀 뒤르켐, Emile Durkheim 《사회분업론》, 1893)
 - 기계적 연대 : 낮은 노동분업 상태에서의 전통적인 문화,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회구조를 지니며 노동분화의 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나타남. 공통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공유된 믿음'의 강도가 커서, 개인을 억압하여 공동체의 관습적 삶에 복종하도록 강요
 - 유기적 연대 : 사회 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노동 분화의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발휘되는 연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이러한 상호 의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통합력이 높아짐

공동체(communitiy)

-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
- 공동체는 구성원들을 관계망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정체성과 소속감도 부여

규범의 새장으로서의 공동체

- 경제학자 아세모글루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사회적 규범(social norm)”이라며, 이 규범이 질서와 안정을 낳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을 억압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
- 규범: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기대되는 행동의 패턴들,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담당

공동체는 언제 성공하는가?

- 집단의 정체성과 개인성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 개인의 개성과 자유는 허용하되, 개인의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이와 관련해 우정, 호혜, 집단 소속감의 자발적인 고취나 리더십의 역할이 강조
- 친절, 이기심, 호혜와 같은 개인적 속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조직 방식이나 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짐
- 공동체 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지나치게 경직적인 것도, 지나치게 유동적인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사회적경제가 공동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 공동체는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삶에 대한 통제감을 부여하며 공적인 책임감도 강화
- 공동체는, 오늘날에는 더이상 경제활동의 핵심 단위는 아니지만, 정부나 시장과 비해 여전히 경제적 우위를 지니는 부분도 있음
 - 공동체 내부에서는, 법이나 계약에 의지하는 것에 비해, 유연한 거래를 폭넓게 행하는 것이 가능
 - 공동체는 익명의 장터와도 다름 ⇒ 아이를 함께 기르고, 노약자나 취약계층을 같이 돌보며, 지역의 자산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관리함
 - 공동체에는 근접성 및 구성원들의 필요에 대한 양질의 정보 제공 능력으로 인해, 각자의 특정한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음
 - 공동체는 무임승차자들을 가려내는 능력이나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찾아내는 능력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는 오늘날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느슨하고도 유연한 열린 공동체를 지향

- 사회적경제는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과 주민과 당사자들의 구체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사업과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공동체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음
- 사회적경제는 시장과 정부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과 정부에 좋은 기풍을 불어넣는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음



2.3 철학과 역사로 보는 사회적경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일상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공동체의 안녕이나 번영을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영토를 지켜야만 함.

- 이때 공동체가 맞서 싸워야 할 적(敵)에는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의 적도 있지만, 공동체의 기운을 해치는 내부의 적도 포함
-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러한 구분을 반영해 직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 하나는 교역하거나 생산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영토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

사회적 분업체계(제인 제이콥스, Jane Jacobs) :
거래자들(traders) vs. 수호자들(guardians)

- 거래자들 : 모두의 물리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납세를 통해 수호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
ex) 상업·상업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학적 활동 등
- 수호자들 :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수호하고 내부의 부패로부터 사회의 기풍을 지키는 사람들
ex) 군인·경찰·관료·판사·입법자·종교인·시민운동가 등
- 인류에게는 이들 두 직업군이 둘다 필요 ⇒ 이들 두 직업군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가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공존 및 조화가 중요 ⇒ 두 직업군의 원활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로 상이한 성격을 지닌 별도의 도덕체계 또는 수칙체계들이 작동하고 있음

철학과 역사로 보는 사회적경제

취득(taking) vs. 거래(trading)

- 취득 활동 : 원하는 것을 영역을 넓히거나 얻거나 구하는 채집 및 수렵 행위 ⇒ 수호자의 업무로 발전
- 거래 활동 :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이들을 판매하는 행위들이 포함 ⇒ 거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에 더해 타인의 필요까지도 염두에 두고 활동을 하도록 유도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직무를 뒤섞는 것은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됨

- 사회적경제는 상호성과 공익성의 원리에 근거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
⇒ “거래자들”에 속함 ⇒ 거래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하려면,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낮선자와의 협업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
- 공공선의 달성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과제이지만, 일차적으로는 “수호자들”의 몫 ⇒ 사회적경제는 영리경제에 비해 공공선을 명시적으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수호자들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함

- 사회적경제는 거래자들의 영역과 수호자들의 영역이 겹치기도 하고, 두 직업군의 협업이 수행되는 공간이기도 함. 동일한 사람도 업무의 내용에 따라 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업무가 거래자의 일에 속하는 것인지, 수호자의 일에 속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며, 각각의 업무에 맞는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두 가지 의미의 경제

경제(經濟: economy)

-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 경제활동의 목적이나 내용
- “돈이나 시간, 노력을 적게 들이는 일”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방법이나 수단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vs. 돈벌이로서의 경제

-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관리 기술인 오이코노미아와 돈벌이 기술인 크레마티스티케를 구분
- 오이코노미아(oikonomia) : 가정경제를 관리하는 것, 곧 가정의 살림살이(household management)
- 크레마티스티케(Chrematistike) :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 축재술, 돈벌이의 기술을 의미
-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이코노미아가 크레마티스티케보다 고차적인 범주라고 보았음
 - 크레마티스티케(the art of acquiring money)는 오이코노미아(the art of housekeeping)의 하위 기술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이코노미아를 잘 수행하기 위한 수단 ⇒ 돈벌이 기술이 살림살이를 방해한다면,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지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두 가지 의미의 경제학

실체적 경제학 vs. 형식적 경제학

- 실체적 경제 : 물질적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연 및 인간들과 벌이는 상호작용 과정과 관련
- 형식적 경제학 : 부족한 수단을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때 당면하게 되는 선택행위와 관련

칼 폴라니(Karl Polanyi) 에 의하면, 사람들의 삶과 관련해 더 중요한 것은 실체적 경제학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실체적 경제학이었고, 형식적 경제학은 실체적 경제를 뒷받침하는 도구적 역할만을 담당했음

-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무한한 욕망에 기초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을 인간의 보편적 본성으로 내세우고, 사회 전반의 풍토가 가치나 윤리보다는 물질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형식적 경제가 실제적 경제를 압도하게 되었음 ⇒ 이 과정에서 유례없는 물질적 부가 생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등 그 폐해도 컸음
- 사회적경제는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실제적 경제를 현대적 삶의 조건 속에서 다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좋은 삶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모두의 행복

-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幸福: happiness)”, 살림살이는 행복을 위한 수단
- 고대 그리스에서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a)로 표현 ⇒ 주관적인 만족 상태를 뛰어넘어 각자의 품성과 지성을 훌륭하게 연마하고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상태, “좋은 삶(good life)”.
-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사업체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할지, 동료와 후원자를 어떻게 찾아내고 설득할지, 필요한 기술과 자원들을 하나로 어떻게 묶을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갈등을 타협과 양보에 의해 어떻게 조율하고 해결할지를 배우게 됨

다다익선보다는 중용을

- 사회적경제에서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의 논리보다는 “중용(中庸)”의 태도가 더 바람직
-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이란 우리 마음의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부분들을 슬기롭게 다스리고 조절하는 것으로, 부덕한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덕한 요소들 사이의 가장 적절한 비율을 찾아 실천하는 것 ⇒ “좋은 삶”의 핵심
-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여러 국면들마다 양 극단 중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기보다는, 적절한 비율을 찾아내려 함 ⇒ 공익과 사익 사이에, 가치와 이익 사이에, 협동과 경쟁 사이에서 중용과 각자의 균형을 찾아내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는 영역이 바로 사회적경제

노동통합의 네 가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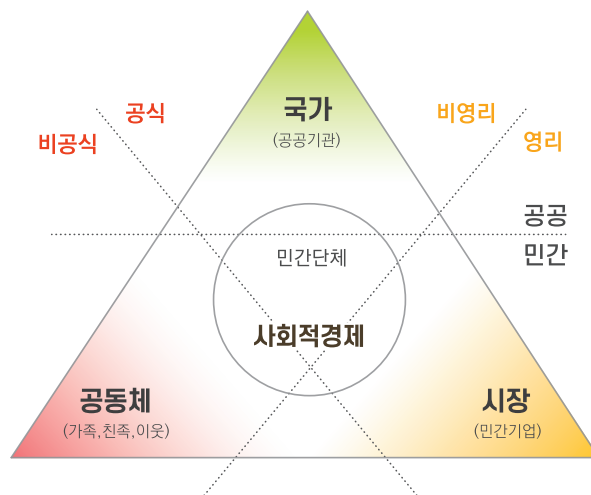
-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 따르면, 사람들의 경제활동 방식 또는 사회의 노동통합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됨
- 가정경제(householding)
 - 집단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하고 저장하고 분배하는 원리. 이익이나 돈벌이를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사용이나 살림살이를 위한 경제활동을 의미
- 시장교환(market exchange)
 - 이득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람들 사이에 시장에서 계약을 통해 행해지는 재화의 상호이동 방식.
 - 등가교환과 자유의 원리를 표방하면서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이용해 자원을 배분
 - 두 가지 시장. 마을시장과 전국적 시장 구분도 필요

- 호혜(reciprocity)
 -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의 유지나 사회적 인정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의 노동분업
 - 박애의 원리에 기반해 공동체의 통합과 공동선을 추구. 증여나 자선활동이 여기에 해당. 시민사회중심
 - 수렵사회에서 큰 짐승을 사냥해서 잡았을 때 나눠먹는 관행.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상하기 쉬운 고기를 저장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 관혼상제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주고 받는 관행, 농경사회에서 모심고, 김매고, 추수를 할 때 이웃 또는 친척 간에 노동력을 교환하는 품앗이도 포함.
- 재분배(redistribution)
 - 재화가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배분되는 방식. 국가나 가부장 등 권위를 가진 존재가 자원의 배분을 주도
 - 평등의 원리에 기반해 정부가 조세를 걷고 복지제도를 운영. 국가중심
-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었을까?
 - 기본적인 필요는 <가정경제> 차원에서 충족. 가족단위로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 ex)논과 밭, 뒤뜰, 닭 등등
 -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는 품앗이와 같은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의 <호혜>를 활용
 - ▶흉년이 들었을 때 동네의 부자집이 공간을 여는 것도 <호혜>에 포함
 - 대기근과 같이 흉년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분배>가 개입 & 국가 차원에서 구휼미를 제공해주는 의창제도 존재
 - ▶대신 백성들은 평소에 세금을 바쳐야 함
 - 소고기, 신발, 의복 등은 <시장교환>을 통해 확보(동네장터에서).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신축적으로 변동하지 않았으며 각 지역마다 품질이나 가격도 달랐음 ⇒ 전국적 시장은 19세기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산물. 그 핵심은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호혜·교환·재분배의 삼각형과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개념은, 경제활동의 목적을 돈벌이가 아니라 살림살이와 사회적 필요의 충족

- 경제활동 및 노동분업의 원리를 재분배·호혜·가정경제·교환으로 재구성한 폴라니의 작업과 연관
- Defourny & Pestoff(2008) : 사회적경제를 재분배 원리에 기초한 ‘국가’, 교환 원리에 기초한 ‘시장’, 그리고 상호성의 원리에 기초한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영역으로 상정한 삼각형 모형을 제시
 - 법적 공식성, 조세 투명성 측면 : 공식부문 대(對) 비공식부문
 - 경제활동 목적 측면 : 영리부문 대(對) 비영리부문
 - 국가와의 관계 측면 : 공공부문 대(對) 민간부문
- 사회적경제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영역이나 시장에 대립하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정부·시장·공동체가 중첩되고 재분배·교환·상호성의 노동분업 원리가 유연하게 활용되는 매개적 영역으로 새롭게 부각됨



토론하기

- 사회적경제의 핵심 개념인 상호성, 공익성, 잉여금의 분배제한, 민주적 통제, 자율과 독립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사적 이익 추구, 돈벌이, 경쟁 등이 사회적경제와 양립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때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사회적경제가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이란 주장의 의미를 음미해보고, 그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놓고 토론해 봅시다.

사회적경제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어떤 해법을 주는가?





주 제	3강. 사회적경제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어떤 해법을 주는가?
교육목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경제가 우리 모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세부목표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이 복지국가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복지 국가와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살펴본다.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커뮤니티 케어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유효한 해법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생애주기 별로 확인한다.

3.1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안전망

사회적 위험과 복지국가

-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공동체에 소속되기만 하면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음
- 산업혁명 이후,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 등장 ⇒ “사회적 위험” ⇒ 19C 말 “복지국가”의 출현
- 사회적 위험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의해 대응이 되었지만, 민간의 영역에서도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자구책이 모색
ex) 교회·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 등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경제와의 제휴

- 1970년대 경제적 불황으로 각국 정부는 복지국가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고 민영화·시장화 등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유럽 : 정부가 복지서비스의 핵심 제공 기능을 민간의 영리·비영리조직들에 이양 ⇒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은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파트너로서 새롭게 등장
 - 한국 : 외환위기(1998년)를 맞아 ‘성장과 복지의 균형’ & ‘생산적 복지’를 기치로 내건 김대중 정부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을 활용하면서 복지제도를 발전시킴 ⇒ 정부는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택함
-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도 파트너로 참여

3.2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복지정책

생애주기별 포괄적 복지 패키지정책

-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직면하게 되는 주요한 사회적 위험들과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 복지정책으로 대응
- 특정 생애주기가 아니라 전 생애 동안 안게 되는 질병·장애·빈곤 등 사회적 위험도 있음

- 아동·청소년기 : 주요한 사회적 위험은 안전, 보육, 교육과 관련한 위험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통합형 아동안전보장체계 구축, 보육시설 안전 강화 및 프로그램 내실화, 공보육 및 교육 내실화,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이 있다.
- 청년기 : 주요한 사회적 위험은 교육, 주거, 일자리와 관련한 위험이다. 교육 관련 정책으로는 교육비 지원(장학금 제도) 강화, 등록금 대출이자 면제 등이 있고,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단독가구 주거비지원,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형태 지원이 있으며, 일자리 관련 정책으로는 청년구직수당(이행기수당), 구직지원 등이 있다.

- 중장년기 :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교육, 주거, 가족부양, 실직 및 조기퇴직, 노후준비와 관련한 위험이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 정책으로는 질 좋은 보육시설 제공, 직장·공공어린이집 증설, 맞벌이·한부모 인센티브, 육아휴직 확대(의무화), 양육수당 등이 있다. 자녀교육 관련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도입, 교육 및 문화 바우처 확대 등이 있고, 주거 관련 정책으로는 주거급여 인상, 전세자금저리융자,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다. 가족부양 관련 정책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 인센티브 도입 등이 있다. 실직 및 조기퇴직 관련 정책으로는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재취업 및 창업 컨설팅 강화, 고용-복지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노후준비 대책으로는 연금사각지대 해소, 내집마련 지원, 금융채무 경감대책 등이 있다.
- 노년기 : 주요한 사회적 위험은 노후생활비, 중증질환 및 장애, 고독과 무위와 관련한 위험이 있다. 노후생활비 관련 정책으로는 다층노후소득보장강화(기초보장-기초연금-국민연금-기업/개인연금-역모기지 등)와 노인일자리 확대가 있고, 중증질환 장애 관련 정책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강화 및 치매관리시스템 강화가 있으며, 고독과 무위 관련 정책으로는 노인여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확대가 있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복지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

- 돌봄(care)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
 - ①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 ②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 ③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 ④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케어안내창구 읍면동 신설,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
- 지역사회 통합돌봄, 곧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민간의 참여 인프라가 중요

커뮤니티 케어에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의 특성들

-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부문에 비해 자율성·유연성·창의성·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 목적에의 헌신·민주적 지배구조·소비자 이용자와의 양질의 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영리 부문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의 관료주의와 시장의 경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지역민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의해 규율되며,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

- 사회적경제조직은 제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 내에서 공유하려는 목표를 갖음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가들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덜함
- ➔ 이러한 특성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과 같은 한계를 상쇄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가능성을 높임

3.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 보육 분야의 문제
 - 이용기관 관련 : 아동학대와 방임, 부실한 급·간식, 불안한 위생상태, 특별활동비·난방비 등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 등
 - 제도 관련 : 보조금 허위 청구,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 부족, 수요 대비 어린이집 부족, 이용자 선택권의 문제 등
- 보육 문제에 관한 사회적경제의 대안 :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
 - 어린이집 운영은 부모 조합원들이 책임지고, 교육은 보육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즐거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음
 - 부모 참여·운영 공개·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으로 경영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급여 및 근무 만족도 등으로 교사들의 근무 열의도 높아, 이용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줌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 청소년의 필요 충족과 관련한 사회적경제의 활동 : 학교협동조합
 -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경제·사회·문화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
 - 2013년 경기 북정고 매점협동조합으로 시작해, 전국에 2019년 기준 90개 이상 활동 중
 - 학교협동조합에 유관기업이나 지역사회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사업적·기술적 경험을 쌓아서 취업이나 창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
 - 학생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문제 해결 능력·공동체 형성·연대 의식·갈등 관리 등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더불어사는 시민학교”라 할 수 있음

- 북정고 : 매점을 학생들, 부모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이용 만족도↑,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업적 경험, 학교폭력 감소나 공감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음
- 성수공고 : 자전거학과(에코바이크과)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 내 현장 실습장에서 자전거 수리와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위험과 착취 문제를 협동조합으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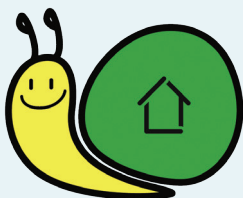


청년기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 사회적 위험 : 교육비나 생활비 등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부담, 높은 주거비용, 오랜 구직 기간 등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들을 위한 비영리 주거모델을 사회 각계에 꾸준히 제안
- 집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냉소적 반응들 끝에, 2014년에 협동조합을 결성해 주거모델을 직접 실행에 옮김
-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달팽이집을 마련 → 조합원들에게 시세의 50%~80% 이하로 주거공간을 제공, 입주자들의 자립과 자치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민달팽이 조합원·입주 조합원·출자 조합원으로 나뉨
 - 조합원구좌(5만원) 이상 출자하고 매달 운영비를 냄.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활동에 함께 할 수 있으며 당장 입주하지 않더라도 6구좌 이상 출자 시 향후 지어지는 달팽이집의 입주 우선권이 주어짐
 - 입주 조합원은 실제 달팽이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 청년들을 위한 비영리 주거모델인 만큼, 달팽이집은 만 19~39세의 청년들만 입주자로 받음
- 이 단체의 사회주택 사업은 계속 확장 중 : 2016년을 기점으로 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회적주택 운영기관으로 선정 → LH와 SH의 매입임대주택을 대학생과 청년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포스코(POSCO)와 서대문구의 지원으로 신축된 '청년누리' 건물을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등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하며 사회주택을 홍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선정
- 공급된 달팽이집은 총 12호로, 매년 1~3개씩 늘려와 현재 서울에 10호, 경기도에 1호, 전주에 1호가 있음
- 총 200세대 정도가 살고 있으며, 2021년까지 300세대로 늘리는 게 목표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주거문제, 청년이 모여 해결합니다.



청년기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 청년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사례

- '꿈지락네트워크'는 청소년교육문화그룹으로 시작한 비영리단체로, 방문객이 저조했던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해 "청춘빌-딩"이라는 청년공간을 조성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공간을 만든 사례로, 이곳에 모인 청년들은 금천구의 청년정책들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꿈지락네트워크는, 공간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빈집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구로 도시재생LAB"과 복합문화공간 "스튜디오 독산"을 운영하고 있다.

- 지역 자원을 활용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통해 7명의 청년들이 경상북도 문경으로 이주해,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화수헌”이라는 이름의 게스트하우스 겸 카페를 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오미자에이드, 가래떡구이, 떡와플 등을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화수헌을 운영 중인 ‘리플레이스’는 그외에도 문화공간 운영, 지역상품 개발, 마을 산책길 코스 조성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에서 활동 중인 청년 공유공간 ‘별집’은 지식공유 컨퍼런스를 5년 동안 41회 열고 논의된 내용을 시에 청년정책으로 제안했으며, 27개팀의 창업을 지원했다. 별집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인 ‘윙윙’은 시민참여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윙윙은 현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지역 자산화, 도시재생 주민참여, 지역화폐, 마을축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장년기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 사회적 위험 :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교육, 주거, 가족부양, 실직 및 조기퇴직, 노후준비와 관련

◆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

-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 중에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끝내 과거와 유사한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경력단절 여성들이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이라는 사업자협동조합
- 조합원들을 석박사 학위를 갖춘 연구인력들로,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일거리를 수주해오고, 조합원들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일거리를 가져가 주로 집에서 일함. 틈틈이 회의를 열어 팀장 주도 아래 공동과업을 정하는 방식
- 이런 방식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R&D KIOSK 브리프 발간사업”을 꾸준히 수행,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지식공유체계구축” 등 다양한 연구용역 성과를 내놓았음
- 2014년에는 서울시가 선정한 여성친화 일자리 100곳에 포함되었음
- 육아와 가사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도 서로 최대한 배려하며 품앗이 노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집단적 자기 고용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프리잡(FreeJob)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중장년기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 플랫폼협동조합

-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을 집단으로 소유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
- 노동자 소유주에게 생활임금 또는 적절한 수익과 혜택, 플랫폼 설계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 해외의 플랫폼협동조합 ◆

- 미국 뉴욕에서 집청소·아기 돌봄·애완동물 돌봄 등 서비스를 중개하는 디지털플랫폼인 업앤고(Up & Go)는 지역의 노동자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영리형 홈케어 서비스 플랫폼이 노동자 수입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것에 비해, 이들은 플랫폼 유지에 필요한 비용 5%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플랫폼협동조합은 홈케어 서비스 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은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디자인과 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디지털 전문 노동자협동조합기업인 CoLab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홈클리닝 서비스 노동자의 조직화는 지역공동체지원조직(CFL)과 지역의 가난 퇴치 활동을 해온 지역재단(Robin Hood Foundation)이 담당하였고, 이 협동조합의 설립 및 개발 투자 자금은 시중은행 (Barclays)의 사회공헌기금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 201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범한 에바(Eva)는 우버에 대한 대안으로서, 서비스 제공 운전자의 권익 향상과 지역 커뮤니티에의 기여가 목적이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 큰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 플랫폼협동조합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다. 그 설립 및 운영에는 창업 아이디어 개발자, 퀘벡노동자투자신탁과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 등 사회적금융조직, 퀘벡협동조합·공제조합총연합회, 다수의 블록체인기술 기업 및 조직 등이 참여했던 것이다.

노년기의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

- 사회적 위험 :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으며 주거·의료·요양·생활지원 등 다양한 돌봄을 필요. 또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 ⇒ 단순한 돌봄으로 축소시키기보다는 교육·일·여가의 양립 문제로 접근할 필요 ⇒ 노인들이 건강하게 이웃들과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지역사회의 활력이 커지는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할 필요
- 이는 앞서 검토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문제의식이기도 함

◆ 희망찬건설협동조합 ◆

- 대학과 지자체의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에게 실용적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창업을 유도하는 방식
- 한국산업기술대가 경기도와의 협력 사업으로 “경기도생활기술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해 5060 세대 신중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건물이나 집수리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생활기술형 협동조합 결성을 유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 한국중부발전 신중년 사회적경제전문가 양성 과정 ◆

-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공동으로 신중년 사회적경제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졸업자들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시키는 방식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 모든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1개월 정도 직장체험을 한 기회 제공 ⇒ 상호 검증과정을 거쳐 취업
- 은퇴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웠던 사회적경제기업도 선별된 매칭 과정을 통해 경영·재무·회계·노무·마케팅·전산·법무 등에 익숙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기업 운영 전반에 도움을 받고, 사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됨

◆ 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

- 전문직 종사자들이 은퇴 후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 전문성을 발휘하고 사회에도 공헌하는 방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인가 1호 협동조합인 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은 고경력 은퇴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구소 출신 은퇴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2013년 결성, 현재 조합원이 133명, 물리·화학·생명·공학·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과학자들이 중소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처방을 제시, 직접 기술개발에도 참여
- 앞으로는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대전 지역 뿌리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지식 중개 컨설팅을 시작하고, 대덕연구단지에 소재한 19개 국가출연 연구원과 10개의 기업연구소 등 29개 기관을 참여시켜 뿌리산업 제조공정의 기술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

◆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 ◆

- 50대 여성주민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결성해 마을을 유지·관리하며 지역에 활력도 불어넣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방식도 도시재생 사업 파트너 방식
-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추진지역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당 마을 주민과 공동체가 중심이 될 조직을 결성해 마을을 직접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 50+세대 돌봄전문가 양성 ◆

- 지방정부와 공익단체가 협력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시니어 돌봄 전문가를 양성하고 사회공헌활동 및 재취업을 돕는 방식
-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돌봄 영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할 50+세대 돌봄전문가 양성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 취득을 지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렇게 양성된 시니어 돌봄인력들에게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토론하기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해법으로 소개된 여러 시도들 중 가장 인상적인 방식을 하나씩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 기존 방식들과의 비교,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봅시다.
-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사회적경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분야가 유망할지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4강

사회적경제는 살기 좋은 지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주 제	4강. 사회적경제는 살기 좋은 지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왔고, 또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 공동체의 부, 시민자산화, 사회적자본 등을 매개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의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다양한 목적 아래 수행한 지역기반 활동들을 살펴본다.

4.1 사회적경제, 지역 그리고 공동체

사회적경제에서 왜 지역이 중요한가?

- 사회적경제는 태생적으로 지역에 기반해 형성·발전
 - 사회적경제 조직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협동조합의 경우 대부분의 조합원이 지역사회 주민들이며, 협동조합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지역사회 주민인 경우가 다수
 - 1970년대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적기업도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 및 사회서비스 전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같은 사회적 과제에 사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등장
- 지역 공동체는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단위
 -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양질의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단위가 지역 및 지역 공동체(local community)
- 지역의 발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 내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소비자·기업·공공기관 등 지역의 경제 주체들이 지출하는 돈이 지역에서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활동과 더불어 이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 및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
 - 지역 발전과 관련한 정책형성이나 자원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조정 및 해결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

사회적경제, 지역 그리고 공동체

사회적경제와 지역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심과 정책

- 1970년대 새마을 운동
 - 정부 주도 하향식, 지역사회 '개발' 이 목적
-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풀뿌리민주주의 운동
 - 주민자치회, 교육공동체 운동,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만들기 등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경제와 결합한 공동체 운동
 - 생활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 2017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 도시재생 뉴딜(국토부), 마을기업지원사업,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커뮤니티비즈니스(CB)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 관점에서 본 현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복지의 효율화라는 측면을 강조
 -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한 지역문제 해결,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 마을이나 공동체 복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순환경제나 공동체 부 형성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음

4.2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지역 공동체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지역순환경제 만들기

- 사회적경제는 구성원들의 공동이익(共同利益)과 사회 전체의 공익(公益) 달성을 목적으로 참여자들과 지역 사회 전체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실현하려는 경제조직 ⇒ 지역순환경제의 핵심 기구로서의 가능성이 충분
-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 것 =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면서 삶의 터전을 만드는 과정

지역 자산화를 통한 공동체의 부(富) 확보

- 공동체가 공유하는 부(富)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경제가 결합되어야 함
- 공동체 부 형성 전략 : 공동재(common)의 소유
 - 공동체는 공동재를 사용하는 방식, 공동재에 대한 소유권이 중요
 - 최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시민자산화, 지역자산화가 다양하게 모색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며 지역의 부를 마련하려는 시도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힘으로 재구성하는 주체적 대응과정
- 공동체들 고유의 활동이 사업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지방정부가 지역민의 참여와 연대를 사업적으로 촉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강화될 수도 있음
- 사회적경제는 지역민들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이자 플랫폼 ⇒ 지역 내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늘리는 기능도 담당



※지역자산화 공공, 민간을 넘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소유·운용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의 권리를 갖는 것.

4.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들

스페인 바스크 지역: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 몬드라곤 지방은 제조(산업), 금융, 소비 및 유통, 그리고 지식(교육) 등 4개의 주춧돌로 구성된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MCC)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
-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발전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빈곤, 불평등, 일차적 권리, 불리한 공동체 등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
- 또한 금융협동조합 노동인민금고가 지역 사회적경제발전, 지역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
- 몬드라곤협동조합 복지를 위한 라군아로: 의료보험, 연금, 급여일부를 적립, 긴급고용 안정자금으로 활용, 위기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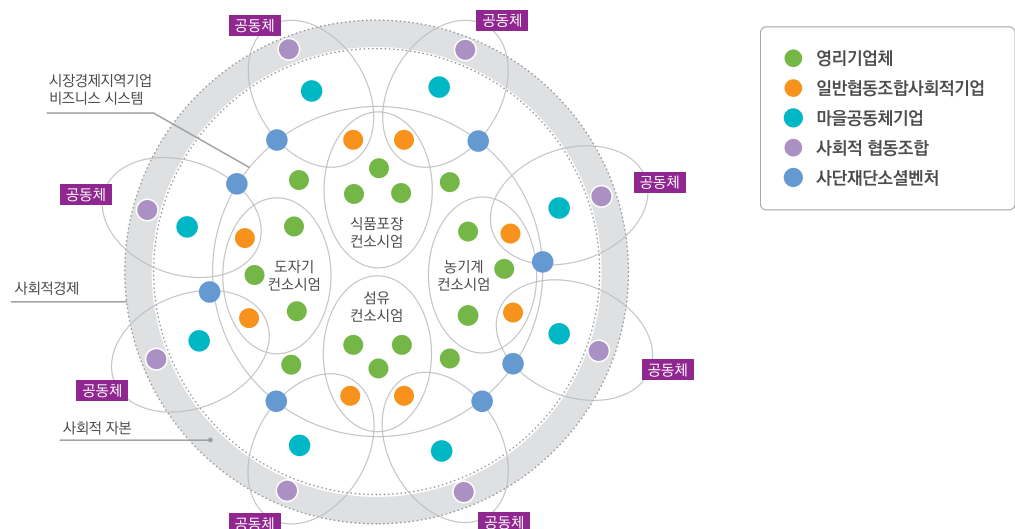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들

네트워크 협동시스템: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

- 협동조합 기업을 중심으로 9개 현이 각자 독특한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를 형성
- 전후반 산업의 중소기업들과 협력을 통하여 수직적 혹은 수평적 '공동생산시스템'을 구축
-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은 네트워크화된 협동시스템을 통해 제조업 분야 소규모 기업들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사업체들로 발전시킴
- 협동조합 간의 협동 원칙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적 전략으로 실현한 대표적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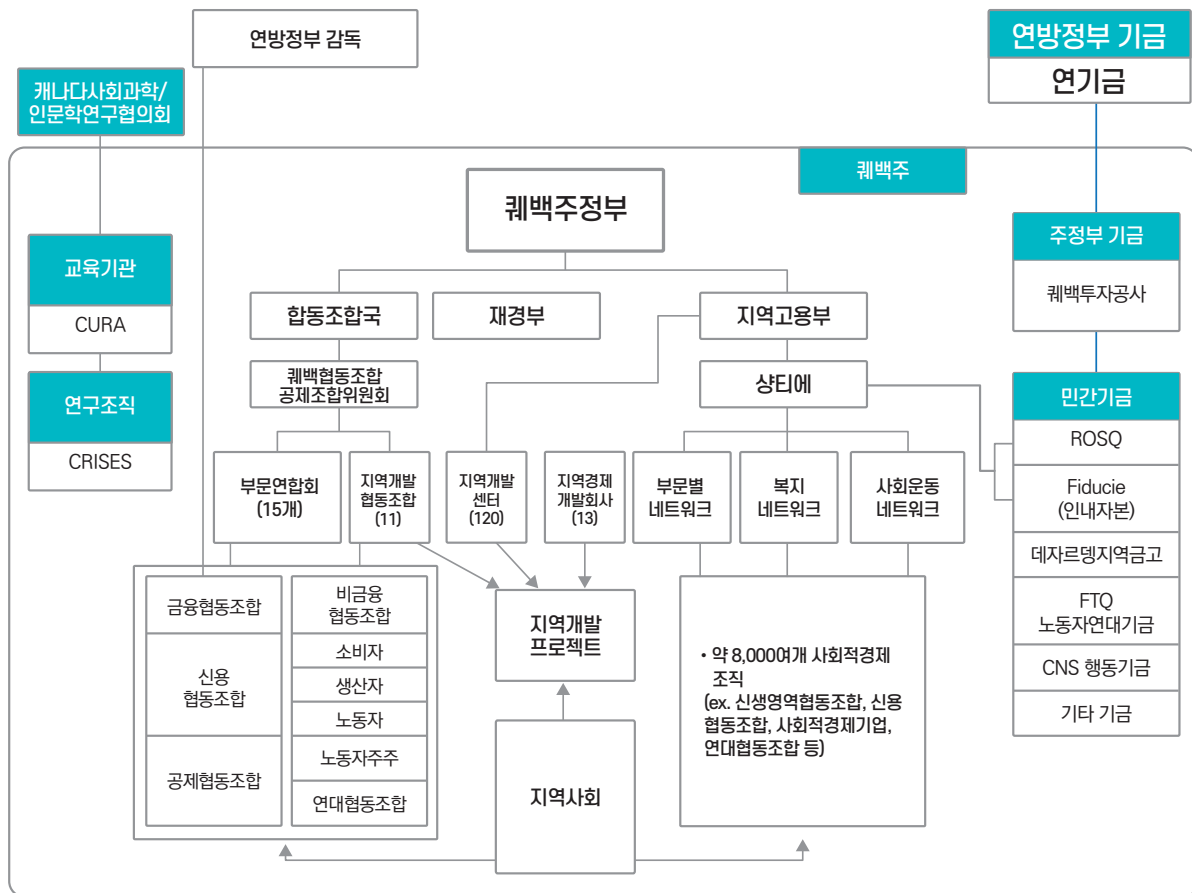
에밀리아-로마냐 네트워크 협력시스템



공동체경제발전운동: 캐나다의 퀘벡 지역

- 주민참여에 의한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발전 및 지역사회와 공존을 다른 목표로 설정하고 사회적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진 사례
-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개인)간 네트워크인 샹티에(Chantier de L'economie Social)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파트너들과의 협력 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성장을 지원
- 노동조합과의 연대와 협력도 중요. 이 연대와 협력이 잘 표현된 것이 데잘탱임. 지역단위 신용협동조합인 데잘탱은 퀘벡 연대기금에 깊숙이 참여하여 퀘벡의 사회적경제에 큰 축을 형성
- 사회적경제가 공동체경제발전운동(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Movement)으로 구체화

[참고] 퀘벡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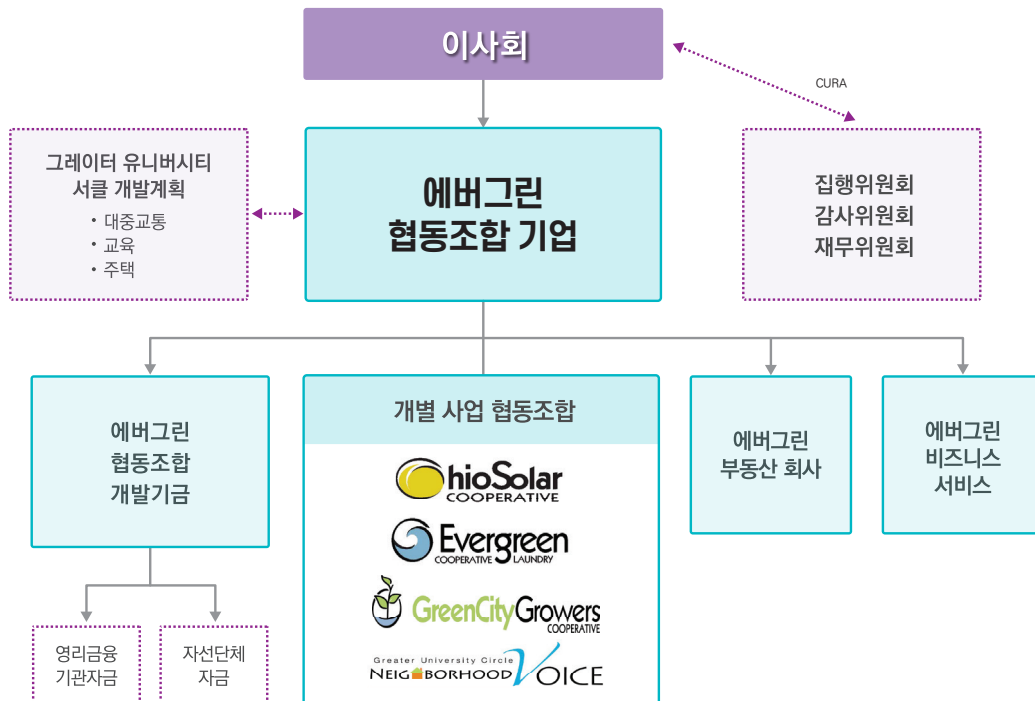


출처 : 전라북도(2012). '전북형 협동조합정책 모델 발굴을 위한 2012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 배낭연수 결과보고', P.34 일부 수정

미국의 클리블랜드 지역: 앵커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순환경제

-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클리블랜드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했고, 지역 내 대학병원·공공기관·대학 등이 앵커 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데 성공
- '닻'을 의미하는 앵커(anchor) 기관들은, 대규모의 예산·인력·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업체나 주민들에게 판로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순환경제의 근간이 되었음

- 자선기관과 협동조합에 부리를 둔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 지방정부의 기술관련 혁신형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도
와 재정 지원, 대학병원이나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JumpStart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중개자 및 촉진자 역할, 지역 대
학의 기술적 지원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의 자체적 동력을 확보한 클리블랜드의 경험은 민간 자본 중심의 실리콘밸리
모델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로 주목



국내의 성공 사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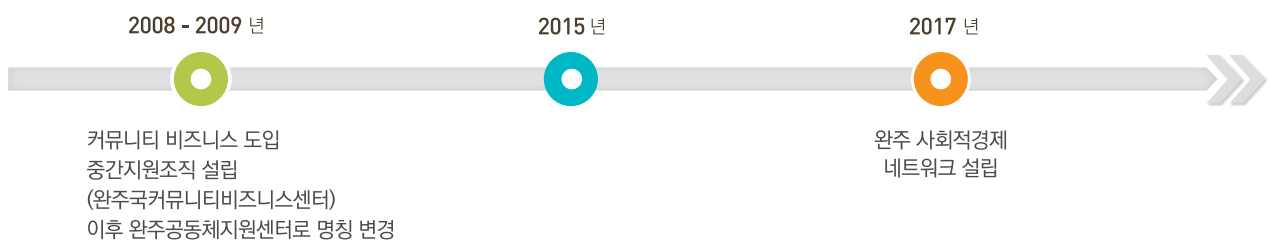
제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구례

-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이 농공단지를 활용, 협동조합 제조업 클러스터인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농식품 가공산
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복원
- 친환경단지 조성을 통해 아이쿱 생활협동조합이 필요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관련 제조 가공업체
의 유입과 집적화를 통해 집적효과를 높이고, 지역농업과 협력을 강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순환경제: 전북 완주

- 민관협력을 통한 로컬푸드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공동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조성으로 확장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추구
- 2017년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연대조직으로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를 설립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민관협력체계로 전환
- 2018년 말 기준 118개의 협동조합, 12개의 사회적기업, 111개의 마을기업, 34개 마을공동체, 30개 지역창업공동체, 94개 아파트공동체 등 모두 421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존재



주민참여, 시민역량 강화로 지역공동체 복원: 성미산 마을

- 성미산 마을은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라 마포구 성산·서교·망원·연남동 일대 크고 작은 70여 개 커뮤니티 네트워크
- 전국 최초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생활협동조합, 성미산학교(대안학교) 등 주민 스스로 힘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 및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도시 속의 마을만들기'가 정착
- 주민 스스로 소규모 집단에서 시작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마을기업을 통한 이윤 및 고용 창출, 공동기금을 통한 자족적 마을공동체 운영, 멘토와 지원을 통한 다양한 마을문화 프로그램 정착으로 마을만들기 확대의 모범사례



4.4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목적별 지역기반 활동들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특구 조성 활동

- 아이쿱생협의 구례군 자연드림파크 농공단지 클러스터와 서울시 강동구 사회적경제특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대표적인 사례
- 2017년 '서울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특구-청년 중심 가족·패션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출발했던 특구조성사업의 목적은 공동 하드웨어·공동 교육·업체 간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의제 및 지역 가치 발굴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육성
- 도시기반 생활관련형 제조업 자영업자들의 사업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생산·공동구매·유통연계 활동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음

◆ 독일의 소기업 협동조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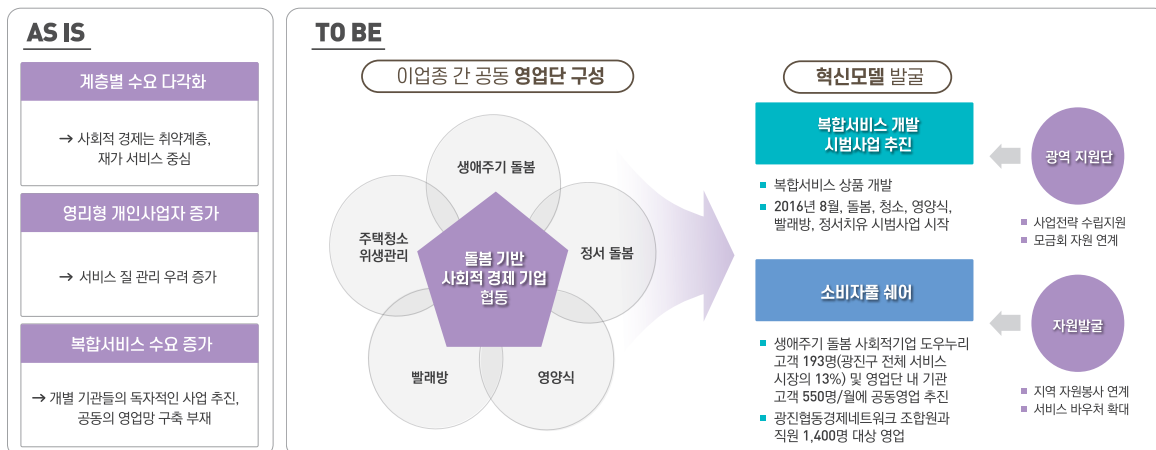
- 독일은 기업당 평균 종업원 수가 11명을 보유한 23만 개의 소기업체(250만명 종사)를 운영하는 소경영자들이 도소매·건축자재·가구·베이커리·신발·의류 등 45개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협동조합을 운영, 소기업체의 약점을 보완해 대기업 못지 않은 사업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의 소기업 협동조합들은 단순한 공동구매·공동판매 수준의 활동을 넘어서서 소규모 조합원 사업체에 대한 물류지원 기능, 디지털 플랫폼 기능, 데이터/IT지원 기능, 컨설팅 기능, 인적자원 개발 기능, 금융지원 기능 등 소위 파워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팀, 2018).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목적별 지역기반 활동들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특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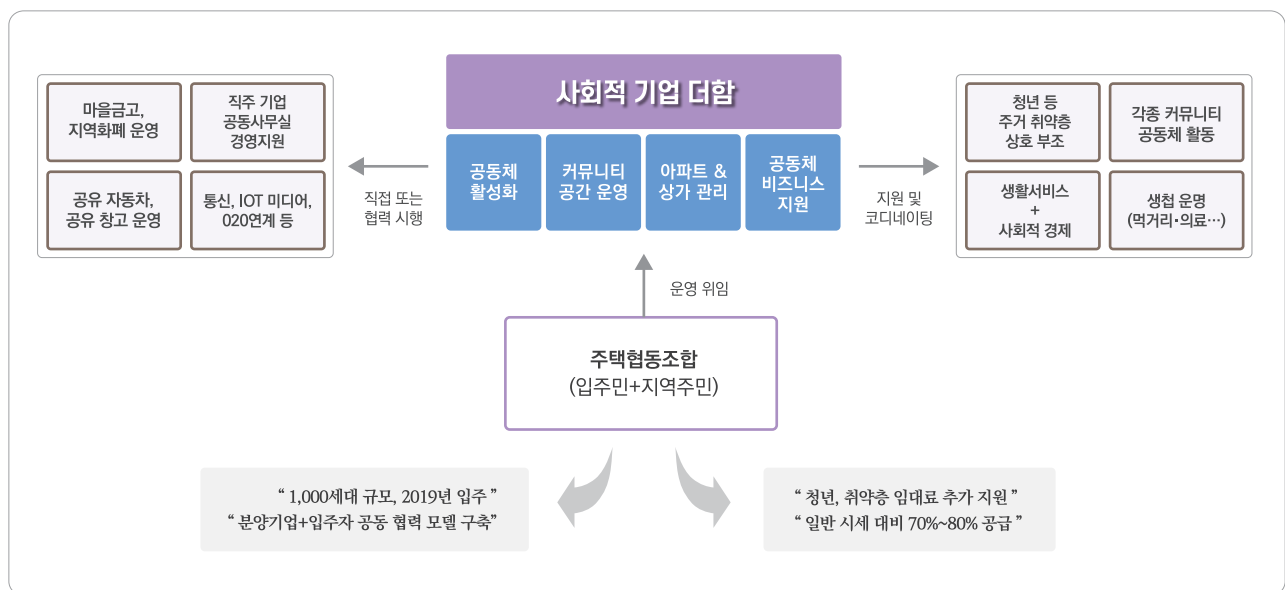
- 서울 광진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돌봄서비스 조직 협동화에 성공했는데, 이 사례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
- 광진구의 돌봄 사회적경제특구에서는 다업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업연합을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의 분절적 돌봄 서비스 수요를 패키지화해 이전보다 더 저렴하게 공동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참고] 광진구의 지역돌봄서비스 혁신모델 발굴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과 공동체 형성

- 사회주택은 유럽에서는 매우 익숙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가령 독일 베를린 지역에서는 주택협동조합(Bermer Höhe eG)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주거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며, 입주자들은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을 수행
- 국내에서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Woozoo)나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아파트 단지를 건설·운영 중인 더함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인 사례



지역자산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의 부 형성

- 지역재생·도시재생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자산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부 형성과 확대를 추구하는 사례도 주목할 필요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이 지역 자산을 소유·운영하면서 임대료를 통제함으로써, 지역재생 과정에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내고 공동체를 지킨 대표적인 사례
- 시흥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은 임대료 상승으로 고정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우리집 건물 갖기 운동'을 벌여 200여평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고, 한의원·치과·돌봄사업소·주민건강증진센터·조합원 활동공간·사무실 등을 입주



◆ 광진구 협동경제네트워크 시민자산화 사례 ◆

- 소 재 지 광진구 중곡동 (지하1층, 지상4층)
- 매입비용 36억원 (10억원 자기조달, 사투기금 2억원 등)
- 입주기관 광진주민연대, 행복중심 광진생협, 주거복지센터, 더불어 내과의원,
사회적기업 도우누리, 자활기업 카페 등 15개 단체
- 임 대 료 주변시세의 40% 수준
- 효 과
 - 지역돌봄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자산화 공간을
거점으로 돌봄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내 생애주기별 복합
돌봄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
 - 매년 1~2개 지역 자산화 추가 추진 결의함. 사회투자기금
통한 장기고액 융자 기대



토론하기

- 사회적경제에서 왜 지역이 중요한지, 지역의 문제가 왜 사회적경제 방식에 의해 잘 해결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 우리 지역의 사회문제들 중 특히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토론해 봅시다.
-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사례들 중 우리 지역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무엇일지에 관해 말해 봅시다.

5강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주 제	5강.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교육목표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수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작동 및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한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운영원칙,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들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 다양한 조직형태들에 대해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체적인 작동을 단체로서의 측면과 기업으로서의 측면으로 구분해 검토한다. •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적 노력에 관해 살펴본다.

5.1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

사회적경제는 ‘경제’와 ‘사회적’의 두 단어로 결합

- 경제 : 집합적 부의 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의미
- 사회적 :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기업 활동이 낳는 사회적 이익 또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

사회적경제기업

- 정의: 사회적 미션을 상업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조직체들
- 특성:
 -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독특한 원칙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조직
 - 상업활동은 단순히 수익창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미션 수행을 위한 수단
 - 지역경제와 커뮤니티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 특징 중 하나임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원칙

- 첫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차적 목적은 개인 혹은 공동체 단위에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그 구성원과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는 것 ⇒ 즉, 기업의 사회적 미션이 곧 그들의 존재 이유
-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속적 활동을 위해 달성해야 할 경제적 목적도 지님 ⇒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민간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업활동을 벌여 고유의 수익을 창출
- 셋째, 사회적경제기업은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체이므로, 민주적으로 경영되어야 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성원들은 개인적 부나 투자한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단체에 대한 동등한 권력을 가짐
- 넷째,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사람과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돈보다 앞섬(잉여금과 수익분배 포함) ⇒ 투자자들의 수익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목적이 아니며, 잉여금은 기업·커뮤니티·이익배분·향후 지출을 위해 보전을 위해 재투자
- 다섯째,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의 특징은 조합원이나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개인적·집단적으로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 ⇒ 이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집단적 조직이 될 수 있음을 의미
- 여섯째, 사회적경제기업은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사회나 총회의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두 목적들 사이의 균형 및 보완의 중요성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이익이나 편익을 가져오고 경제적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하는 기업

- 경제적 지속가능성 : 기업이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고 조직을 성장시키며, 생산성있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투자자와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이윤을 안정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
-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과 경제조직으로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경제 목적 목적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 두 목적이 서로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시 수익 측면만 고려해서도 안되고, 사회적 측면만 고려해서도 안 됨
 - 경제적 측면의 이익만을 위해 “기업”의 조직구조나 판매 및 생산 전략을 바꾸지 말아야 함
 -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겠다는 “조직”의 의지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리한 일자리 수나 가격정책 등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운영상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뒤로 밀려나지 않아야 함

5.2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적·법적 형태들

주요 조직적·법적 형태들 :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사회적기업들

- 자본주의 시장경제 내에 주식회사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조직 형태들이 존재하는 이유 : 거래비용 및 소유비용
- 거래비용: 기업은 자본, 노동, 원료의 제공자와 계약을 통해 투입물들을 조달하고 여기에 기술 및 경영을 결합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 ⇒ 이때 거래자를 찾고 협상을 하며 계약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거래비용’ (예: 거래자에 대한 탐색비용, 거래조건의 협상비용, 계약이행의 감시비용 등)
- 소유비용: 기업의 소유자들에게는 의사결정을 할 권리인 ‘통제권’과 이윤을 분배받을 권리인 ‘잔여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소유권이 부여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의사결정비용, 대리인 감시비용, 위험부담 비용 등이 ‘소유비용’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적·법적 형태들

분 류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설립목적	투자자 이익 추구	조합원의 복리와 권익 추구	공익추구	공익추구
출자자	주주	조합원	-	다중 이해관계자
통제	주주	조합원	이해관계자	위임자
소유자의 자격	제한없음, 소유자≠이용자	제한있음, 소유자=이용자	제한있음, 소유자≠이용자	제한있음, 소유자≠이용자
소유자의 권한	통제권, 잔여청구권	통제권, 잔여청구권	통제권	통제권
자원동원	출자금, 내부유보금	출자금, 내부유보금	후원금, 신탁, 내부유보, 회비	출자금, 내부유보, 정부보조, 후원금
수익배분	주주배당, 사내유보	조합원배당, 내부유보	공적기부, 내부유보	공적기부, 내부유보, 제한된 이윤배분
사업수행	재화와 서비스	재화중심	서비스 중심	재화와 서비스

단체로서의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기업의 미션(mission)

- 기업의 존재이유로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규정하는 출발점
- 기업의 미션은 비전·가치·목적·사업계획·지표 등에도 영향
 - 미션은 기업의 존재이유, 비전은 기업이 추구하는 이상, 가치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믿는 바를 의미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

- 기업의 활동이 주변 환경, 지역사회, 국가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효과를 말하며, 사회적 가치로도 표현
- 사회적경제기업은 본연의 고유한 미션을 사회적 편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사회적 편익의 내용

- 경제적 측면의 사회적 편익(서비스 전달방식 상의 비용 절감, 훈련 활동 및 투자 건수의 증가,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다양화, 지역 정체성의 보존과 강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발전)
- 평등, 인력개발, 지속가능한 발전(과도한 각종 불평등의 완화, 지역 차원의 빈곤 퇴치 활동, 취약계층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 인권의 보호와 신장, 자연환경의 질 개선, 천연자원의 보존과 생물 다양성, 쓰레기 재활용)
- 사회 관계와 지역 민주주의(사회적 연줄 맺기, 지역 인적 관계망 속으로의 통합, 사회적 고립의 해소, 참여자들 간의 상호부조·토론·지식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룹 및 공동체의 결성,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긍정적인 경제 효과 이끌어내기, 다원적 의사결정 과정)
- 사회적·경제적·제도적 혁신에의 기여(파트너간의 협력을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 정부나 민간 영리 섹터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존 욕구에 응답하기, 전국 및 지역 차원의 제도 혁신)
- 조직 외부로 확산 가능성이 있는 “내부의” 사회적 편익(자원봉사 및 무보수 노동, 내부의 민주적 규칙과 자원봉사자 조합원 제도, 조합원·직원·이용자 입장에서 조직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기술을 공유하기, 소명으로서의 직업 기술을 확보하고 이 같은 직업 기술을 사회적·급여적 측면에서 인정하기)

지배구조(governance)

- 넓게는 다스림의 기술을 뜻하며, 좁게는 리더의 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작동되는 일련의 조직적 방식들을 지칭
- 지배구조는 의사결정자들(조합원, 이사, 상임이사) 사이에 권한과 책임을 배분하는 문제도 포함하며, 조직을 운영하고 감독하는 방식을 가리키기도 함 ⇒ 나아가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구조와 절차를 나타냄.
-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징은 이러한 지배구조가 집단적·민주적 성격을 띠는 점임
- 민주적 지배구조는 기업이 미션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신속하고 충실한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주는 효율적인 운영방식

지역밀착성(rootedness)

-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가리킴
- 지역밀착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동원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원의 양과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사회적경제기업이 특정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을 동원하고 준비·실행·관리의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구현될 수 있음
- 지역 소재, 경제단체·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단체·환경단체·시민단체 등과의 협업도 중요
- 지역밀착성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미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동시에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시장

- 시장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 : 제품 및 서비스, 시장분석, 경쟁상대, 마케팅 등
 - 제품 및 서비스 : 가격전략과 품질관리(사회적 필요에 대한 응답,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 포함)
 - 시장분석 : 예상 고객군들의 욕구·특성·습관 등에 대한 분석,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량·시장점유율·매출액에 대한 예측(전반적인 시장동향이나 공공구매와 같은 정부지원정책도 검토)
 - 경쟁상대 : 경쟁기업의 규모·성장세·수익성이나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들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검토
 - 마케팅 : 판매목표의 설정, 유통·판매·홍보 전략의 수립(지역밀착형 마케팅, 고객관리도 검토)
- 사회적경제기업은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시장(경제활동과 관련된 시장, 미션과 관련된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경우도 많음
 - ex)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공익적 차원에서 대중교통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생산관리

-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미션 및 경제적 목적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

생산관리에서 고려할 점

- 제조과정 : 생산성 및 장비 이용률 추정, 전문기술 가용성 제고, 품질관리, 비용평가 등이 중요
- 공급망 : 구매관리, 운송과 보관 관리, 공급전략과 생산 간의 적합성 제고,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대체 공급원 이용 가능성 확대, 공급주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이 중요하게 고려
- 기반시설 : 기반시설 노동력과 기기의 업무배치, 시설 마련과 유지 비용, 시설의 수준과 성능, 유지보수 계획, 차량, 그 밖의 필수 기기, 판매예측과 생산능력 비교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
- 입지 : 서비스 및 공급의 인접성, 지표면적·사용가능 공간·부지 유형, 교통비 혹은 교통이용 시간, 임대료·보안, 외부 참고 예상 면적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

인적자원과 인사관리

- 인적자원 : 개인이 가진 전문기술 및 경험 + 조직문화

인사관리에서 고려할 점

직원들이 기업의 미션 수행 및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매진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 시스템에 다음과 같이 내용들이 담길 필요가 있음

- 역할과 책임, 보고체계에 대한 명시
- 인적자원 개발 및 충원 계획에 근거한 필요역량 일람표
- 전략적 경영목표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개인별 목표 설정 및 공정한 평가를 통한 개인별 실적관리 절차
-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및 효과적인 정보 전달 과정의 존재
- 직원들의 경영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 등

재무관리

-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관리 대상은 크게 두 가지 ⇒ 재정적 생존력 + 재무건전성

재정적 생존력

- 당기순이익 또는 '순잉여'로 대표되는데, 기업의 수익구조 및 비용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 이때, 비용은 다시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으로 나뉜다.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얻는 매출액에는, 매출액에 비례해서 변동하는 가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자재·에너지·노동 관련 비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가변비용은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에 비례해서 안정을 유지하든지 감소해야 하며, 적절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 고정비용은 기업이 판매량과 상관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건물, 관리직 급여, 보험,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된다.
- 일단 비용 구조가 확정되면, 고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매출이 이 수준에 이르면 흑자도 적자도 발생하지 않는데 이 지점이 손익분기점이다.

재무건전성

- 기업의 유동성과 채무 상환 압력에 의해 좌우된다.
- 기업의 유동성 상황을 판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단기자산과 단기부채를 비교하는 것이다. 단기부채 대비 단기자산의 비율(=운전자본율)이 높을수록 기업이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부채의 측정을 통해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적인 차입 여력과 향후 채권자로부터 가해질 재정적 압박을 알 수 있다.
- 기업의 전반적인 부채 실태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인데, 이 비율은 외부자금 조달의 수준, 기업 외부자가 지는 재무적 리스크, 내부자금 조달의 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높을수록 기업의 빚은 많고 재무 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조달

-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효과적인 자금조달이 아주 중요한 과제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편익의 크기와 구조적인 시장실패의 정도에 따라 복지형 · 위탁형 · 지속가능형 · 상업형 · 혁신형 등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유형별로 자금수요도 다르고 적합한 자금이용 수단이 다름
 - 복지형 사업체 : 사회적 편익은 크지만 재무적 성과가 낮은 사회적경제 사업체들, 영업활동을 통해서도 변동비의 일부분을 회수할 수 있음 ⇒ 정부 보조금이나 민간 기부금이 주요한 자본조달 경로
 - 위탁형 사업체 : 사회적 영향은 보통 이상이지만 재무적 성과는 중간 미만인 사회적경제 사업체들, 영업활동을 통해 변동비는 회수할 수 있지만 고정비를 회수하기 어려움 ⇒ 외부 지원금과 저리의 장기대출이 필요
 - 지속가능형 사업체 : 사회적 영향은 크지만 재무적 성과는 보통인 사회적경제 사업체들, 영업활동을 통해 변동비와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지만 자본비용까지 회수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지는 못함 ⇒ 저리의 운전자본 대출만 가능, 성장자본을 조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상업형 사업체 : 사회적 영향은 보통이지만 재무적 성과가 뛰어난 사회적경제 사업체들, 영업활동을 통해 충분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 ⇒ 상업자본 유치가 가능하고 성장자본 조달도 용이
 - 혁신형 사업체 : 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성과가 모두 우수한 사회적경제 사업체들, 충분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민간 상업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위험자본 투자도 가능
- 동일한 유형이더라도 생애주기나 경영 여건에 따라 자금수요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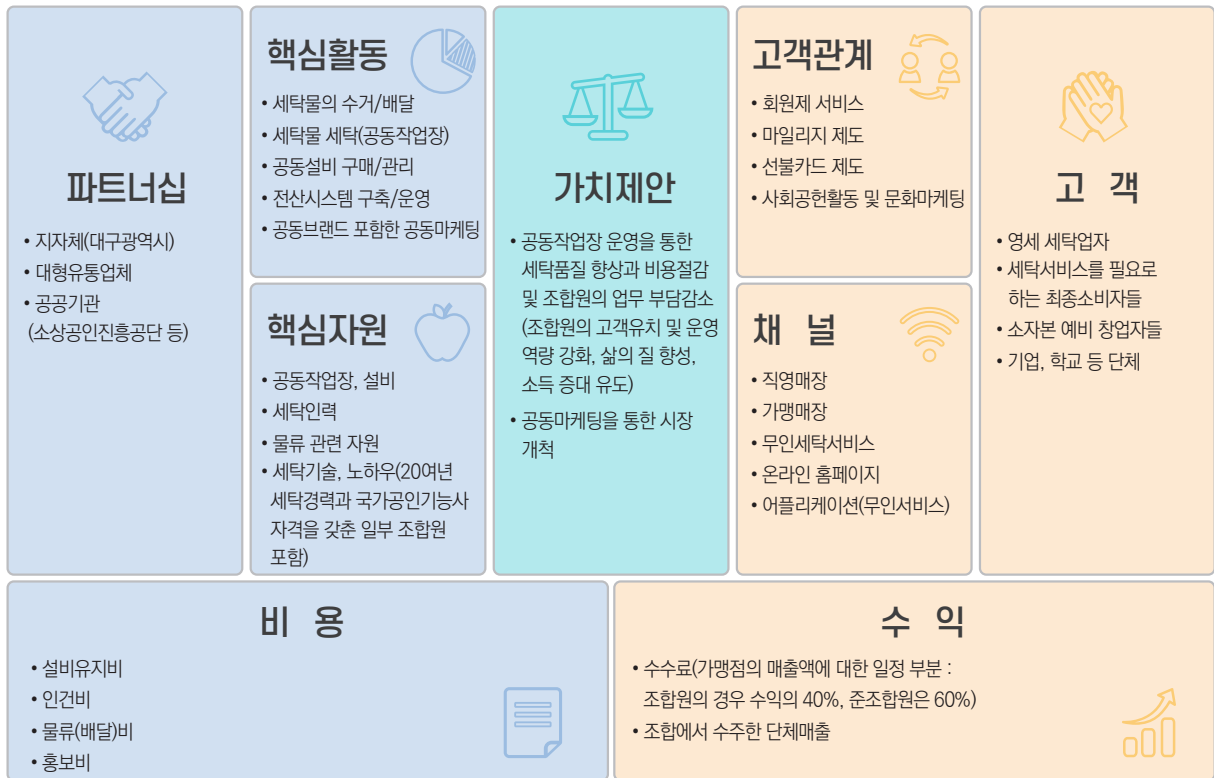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적 운영 분석 모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 아홉 가지가 유기적으로 나열 ⇒ 조직이 어떠한 핵심고객에게 고유한 가치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며, 이러한 가치창출을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핵심 활동과 자원, 그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구조를 단순화된 도식을 통해 설명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중앙에 위치한 가치제안을 중심으로 크게 좌측면과 우측면으로 구분 (Osterwalder·Pigneur, 2010)
 - 가치제안 : 타겟이 되는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주는 요소로 조직이 제공하는 핵심 제품 및 서비스를 의미
 - 좌측면 : 핵심가치제안을 창출하기 위한 조직의 운영요소들로, 효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가치제안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
 - 우측면 : 핵심 고객의 파악,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채널 등 창출되는 가치의 내용이 시장의 니즈를 충족하는지에 초점을 둔 요소들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으로 구성



하이크리닝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



※ 출처: 이예나, 이상훈(2019: 42)

(주)모어댄의 비즈니스 모델



※ 출처: 박재환, 전해진(2019: 192)

5.3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결사체 또는 단체로서의 속성과 사업체 또는 기업으로서의 속성이 공존

- 이러한 이중성이 시장에서 영리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놓고는 두 가지 견해가 공존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조직운영에서 구현하려는 단체로서의 성격이 사업적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동시 추구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경제적 목적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본연의 미션이 약화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 사회적 목적 추구가 경제적 목적 추구를 일정 정도 방해하더라도, 사회적 목적 추구가 더 상위 가치인 한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사업적 경쟁력을 한층 배가시키지 않으면 안 됨 ⇒ “혁신”이 중요

혁신(革新: innovation)이란?

혁신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기업가들에 의해 주도되며, 그 본질은 “창조적 파괴”와 “신결합”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경제구조를 부단히 바꿔놓는 과정
- 신결합(new combination) : 기존의 지식과 새롭게 습득한 지식을 재조합하거나 지식들의 구성을 달리해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기업가

기업가정신이란 미래의 불확실한 성과에 대한 기대 속에서 자원을 투입하고 사용하려는 정신, 의지, 활동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재산 또는 소유의 문제가 개입하며, 상상력(imagination), 독창성(creativity), 경계(alertness), 통솔력(leadership), 모험정신(venture) 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루고자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자원 배분의 방식은 어떠한지, 사업에 임하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 유형의 기업가정신도 가능하다. 이윤의 획득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개인적 영향력 등이 기업가를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사회적 영향을 위해 사업에 임하는 사람들을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s), 그들의 정신을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이라고 지칭한다.

- “기업가는 이윤 획득의 기회에 항상 깨어있는 자본 소유자로, 그 본질은 촉진자이다”(Ludwig von Mises, 루드비히 폰 미제스)
- “기업가정신은 기회에 대한 예민한 감지이다”(Israel Kirzner, 이즈라엘 커즈너)
-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생산과정, 새로운 시장, 새로운 조직의 도입이다”(Joseph Alois Schumpeter, 요제프 쉘페터)
- “기업가정신은 불확실성 하에 수행되는 판단적 의사결정이다.”(Frank Knight, 프랭크 나이트)
- “기업가정신은 외부적 충격에 대한 적응이다.”(Theodore William Schultz, 씨어도어 쉘츠)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사례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 1997년, 어려움에 처했던 여섯 개의 생협이 모여 탄생한 연합조직. 당시 조합원 수는 1천명이 채 되지 못했으며, 연 매출액도 15억 수준
 - 당시 경영진들은 실패의 원인을 조합원의 충성도가 낮았던 데서 찾았음. 정직하게 생협을 운영했고, 폭리를 취하지도 않았지만, 조합원들은 자신이 생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임 ⇒ 조합비 제도 도입
- 과거에는 생협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상품을 팔 때 마진을 붙여 총당. 쌀을 10만원에 사서 20% 마진을 붙여 12만원에 팔고, 2만원으로 운영비를 총당 ⇒ 주인인 조합원에게 마진을 붙여 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10만원에 사서 10만원에 공급하고, 운영비는 조합비로 확보(필요한 운영비가 100만원이고, 조합원이 50명이라면 조합원 1명당 2만원씩 거두는 방식) ⇒ 마진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물품 가격은 전체적으로 저렴해진다는 효과에 더해, 조합비를 어차피 낸 상황에서는 이용을 늘릴수록 조합원의 이익이 커지는 쪽으로 상황이 변화
- 물품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조합원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기 시작, 1인당 이용도 증가 ⇒ 이 과정에서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 생산자와의 협상가격을 낮추고 물류비용을 줄이는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본격화
- 조합비 제도가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아이쿱생협의 활동방식에도 변화가 발생 ⇒ 경영자와 활동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매출을 늘리는 데서 조합원을 늘리는 쪽으로 옮겨갔고, 지역생협의 활동은 교육과 홍보 그리고 풀뿌리 생활정치 중심으로 확대 & 물류나 제품관리 등 사업경쟁력을 높이는 업무는 연합조직이 맡게 됨 ⇒ 조합비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 단계를 바꾸면서 경영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지역조합들의 설립이 활발해짐
- 이후 10년 동안 “사업의 집중과 조직의 분화”라는 원칙이 아이쿱생협 내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음 ⇒ 합병을 통해 비용절감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합조직을 통해 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높이고, 조합의 분화를 통해 조합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조합원 간의 유대와 결속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주인의식도 높일 수 있었음

토론하기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 사회적경제기업을 찾아보고, 이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 봅시다.
-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가치추구는 서로 충돌되는 측면도 있고, 서로 보완해주는 측면도 있을 텐데, 충돌보다는 보완 쪽이 강한 업종이 따로 있을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에 관해서도 토론해 봅시다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어떤 조직형태를 선택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논의해 봅시다.
-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사례를 찾아보고,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경제적 목적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논의해 봅시다.

6강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제도와 정책은?





주 제	6강.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제도와 정책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제도화 하였는가에 따라 국가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이해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과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본다.

6.1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산업혁명을 계기로 공동체의 해체가 본격화되면서 민간영역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의 생존 및 기본적 필요 중 일부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전개

- 영미권 : 민간의 비영리조직이 자선활동을 통해 공공의 필요를 충족
- 유럽 대륙 : 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 등이 공공의 필요를 충족
-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흐름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로 치부되었다가,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다시 주목을 받음 ⇒ 제3섹터는 정부를 대신해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대신 공급하거나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함

한 국가에서 복지국가의 경험유·무와 기존의 복지정책, 제3섹터가 복지 및 실업 극복에 참여 및 기여해 온 정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정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복지국가를 경험한 국가의 경우 가족이라는 소단위 공동체로부터 기업과 사회단위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존재
- 복지국가의 위기 논의와 함께 복지서비스 축소가 논의되면서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줄어든 복지를 메우는 활동이 증가
-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변모하며 발전하면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탄생

국내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제1기: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태동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발전 역사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시작된 협동조합운동에서부터 시작
 - 1920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경성소비조합'과 '목포소비조합'이 한국 최초의 협동조합으로 설립, 이후 천도교의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 기독교 YMCA의 '농촌협동조합' 설립, 1930년 8월 평양에서는 고무공장 총파업에서 해고된 300명의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공장을 설립 ⇒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된 자발적 민간협동조합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한 일제가 사회주의운동으로 규정하면서 1933년에 강제 해산
- 1945년 해방이후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운동은 대체로 신용협동조합운동에서 출발해 소비조합운동으로 발전 & 농민조직들이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을 구성하였으나 관제(管制)농협으로 변모
- 1960년대 초반부터 안티고니시운동의 영향을 받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신용협동조합들이 설립
 - 부산의 '청십자의료협동조합',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 등 의료협동조합들도 설립 ⇒ 20여년 후 국가 의료보험체계가 수립되기 전까지 지역 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 신용협동조합의 활성화는 1980년대 초반에 소비자협동조합운동으로 확산, 1983년에 소비자 협동조합중앙회 창립
 - 1994년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학생협동조합이 통합되면서 유기농산물직거래, 공동구매를 포함해 보육, 의료, 보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운동이 확산
-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과는 다르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 생산공동체운동의 주체로서 부각되기 시작
 - 1990년 인천에서 '두레협업사'가 설립, 1992년 서울 하월곡동의 '건축일꾼 두레'를 시작으로 1995년 구로의 '봉제협동조합', 마포의 '마포건설' 1990년대에는 특히 건축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 운동으로 확산

제2기: 생산공동체운동의 제도화

- 자활공동체는 1990년대 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되었던 노동자협동조합의 조직화 흐름에서 기인하는 조직으로 당시 생산공동체를 지칭하는 개념이기도 했음
-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1999년 8월부터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되어 생활협동조합은 생산자, 생산자단체, 문화단체 등과의 공공사업 및 정부, 지방자치 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고 1995년 김영삼 정부의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자 협동조합 방식이 검토되면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제도권으로 편입
-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으로 시작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
-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 실업이 확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는 실업극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특히 국민성금으로 조직된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를 설립 → 국민들의 실업극복성금을 모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저소득층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 운동에서 시작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민간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발전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의 개념으로 확장 → 정부차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에 힘입어 2007년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제3기: 사회적기업의 제도화

-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끊임없이 노동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영세성과 경영미숙으로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들에 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었음 → 1990년을 전후로 노동자들이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다시 등장
 -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흐름 : 노동조합에 의한 기업 인수나 노동조합 경험에 있는 활동가들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 빈민운동에 기반을 둔 흐름 : 수도권의 빈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운동의 일환
- ※ 당시 실업운동 조직과 지역자활센터는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활동을 '제3섹터형 일자리'로 규정 → 제3섹터형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사회적기업'을 지칭하는 것이었음
- 외환위기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실시 →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

- 2007년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육성법」이 제정 ⇒ 노동자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또 다른 생산 조직 유형이 추가되어 제도적 뒷받침을 받으면서 빠르게 확산
- 오늘날 인증 사회적기업과 일자리 창출형 협동조합,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은 법률제도에 의해 처음 생성되기 시작한 생산 영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

제4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과 마을기업 제도화

- 8개의 개별법 협동조합 체제 하에서 개별 협동조합의 가치나 그 혜택의 공유는 소수에 한정되었으며,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나 통일된 정책 추진, 정확한 실태조사 등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 ⇒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부터 있었으나 입법 활동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협동조합 활성화 필요성 및 개별법 체제의 한계에 대한 공감대 확산되어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입법절차가 진행되었고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존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그 설립기준도 완화하여 새로운 방식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
 - 마을기업은 2008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사업으로부터 시작
 - 2009년 이후 희망근로사업을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방안이 모색 ⇒ 2010년 하반기부터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추진 ⇒ 행정안전부는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확정해 마을기업 시범사업을 시작 ⇒ 2010년 12월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 2011년부터 마을기업 지원 정책 추진
- ※ 지원 방식은 시, 군, 구별로 마을기업을 선정해 한 개소당 최대 총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에 비해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사회적경제 발전 시기에 따른 특성

제1기: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태동기(일제강점기~1994년)

- 소비자협동조합, 신협, 생협의 발전, 노동자 협동조합이 생산공동체 운동으로 발전
- 사회적경제의 4개 미션 중 취약계층 일자리, 관계형 서비스, 행복한 지역 만들기가 발달

제2기: 생산공동체운동의 제도화 시기(1995년~2006년)

- 생산공동체 운동이 자활공동체 사업으로 제도화
- 사회적경제의 4개 미션 중 취약계층 일자리에 집중

제3기: 사회적기업 제도화 시기(2007년~2012년)

- 자활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영국과 미국의 사회적기업에 영향을 받아 제도화
- 사회적경제의 4개 미션 중 취약계층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사업적 경쟁력에 집중

제4기: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및 마을기업 제도화 시기(2013년~현재)

- 기존 개별법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법이 제정, 마을기업 활성화
- 사회적경제의 4개 미션 중 양질의 일자리+사업적 경쟁력, 관계형 서비스, 행복한 지역 만들기

6.2 사회적경제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사회적경제기업의 법적근거 및 관련 조직

구분	사회적경제 조직 종류	법적근거	관련 부처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고용노동부
2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고용노동부
3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기획재정부
4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기획재정부
5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	행정안전부
6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보건복지부
7	농어업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농림축산식품부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정거래위원회
9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농림축산식품부
10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양수산부
11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	산림청
12	업연초생산협동조합·업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업연초생산협동조합법」	기획재정부
13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14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법」	행정안전부
15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내 사회적경제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구분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격부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자 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 빈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 부응	기업 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
관 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기관	• 광역자활센터	• 행정자치부 지정위탁 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기획재정부 지정 위탁 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 운영기관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비 고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 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 의 수익금 배분	• 출자자 및 고용인력 70% 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 (5인일 경우 100%) •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 출자 및 경영참여	• 자발적 개방적 조합원 (1인 1표의 원칙) • 일반협동조합(신고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제)	• 배분가능 이익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지역형) 지정제도 시행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법인형태

구분	설립 가능한 법인격
자활기업	• 민법상 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마을기업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협동조합	• '협동조합' 자체가 별도의 법인격임
사회적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자활기업

개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보건복지부, 2017)

※ 2012.8.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명칭이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변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

자활기업의 유형

광역자활기업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님
 -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기업으로 취·창업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한 조건부과제외자로 처리하지 않고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처리(행복e음 자활지원 계획수립 시 조건부수급자로 처리)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 조합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자활기업 조직 유형별 현황(2017)

구분	기업수	참여인원(명)	매출(억원)
지역자활기업	1,055	7,316	1,602
광역자활기업	34	1,153	-
전국자활기업	3	5,685	1,615

지역 자활기업의 서비스 유형별 현황(2017)

(단위: 개, %)

구분	청소/소독	집수리	돌봄 (간병)	음식/도시락	폐자원재활용	서비스/세차	기타	계
개소	258	184	144	98	42	30	299	1,055
비중	24.5	17.4	13.6	9.3	4.0	2.8	28.3	100

지역자활기업 규모별 현황(2017)

(단위: 개, %)

구분	5인이하	6인이상 ~10인이하	11인이상 ~30인이하	31인이상 ~50인이하	51인이상 ~100인이하	100인 이상	계
개소	782	144	95	20	6	8	1,055
비중	74.1	13.6	9.0	1.9	0.6	0.8	100

마을기업



개념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의 유형

청년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재도약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되었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고 있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써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우수마을기업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썩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新유형마을기업	변화하는 역사적·사회적·환경적 상태를 반영하여,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생활 변화, 정책의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을 말하며,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등이 있음

설립요건

- 기업성: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는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공동체성: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회원 외에도 지역 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성: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지역 소재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여야 함.

마을기업 현황(2019년 6월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6	78	89	56	61	53	44	30	183	122	88	134	110	161	131	120	36	1,592

마을기업 업종별 현황(2019년 6월 기준)

(단위: %)

업종 유형	일반 식품	전통 식품	관광 체험	공예품	문화 예술	교육	재활용	유통 기업	의류 신발	물류 배송	사회 복지	에너지	기타	계
비율	43.0	14.4	12.7	5.7	4.3	4.1	2.6	1.4	1.1	0.8	0.6	0.4	8.9	100

마을기업 고용 현황(2019년 6월 기준)

(단위: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자리	3,145	6,533	10,117	10,218	11,500	16,101	17,438	19,261

협동조합



개념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이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함(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 2012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이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개별 협동조합법에 근거함

협동조합의 유형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조합원의 필요 충족	사회목적 실현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유형	사업자, 다중이해관계자, 직원, 소비자	반드시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배당	손실금 보전 및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적립 이후 잉여금에 대한 배당가능	배당 불가
청산	채무를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부채 및 출자금을 제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상급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중 하나에 귀속

협동조합 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개, %)

구분	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소계	사업자	소비자	직원	다중이해관계자			
조합수	10,615	9,954	7,456	328	438	1,732	604	52	5
비중	100	93.8	70.2	3.1	4.1	16.3	5.7	0.5	0.0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2016년 말 기준)

(단위: %)

구분	도 소 매 업	교육 서비스 업	농 립 어 업	제 조 업	예술, 스포츠 등	협회 및 단체 등	보건 및 사회 복지	출판, 영상 등	숙박 및 음식점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 시설 관리 등	건 설 업	운 수 업	하수, 폐기물 처리	부동산 및 임대업	전기, 가스 등	기 타
비중	23.6	13.7	10.3	8.7	8.6	7.2	5.2	3.9	3.5	3.3	3.2	2.6	2.6	1.2	1.0	0.6	1.7

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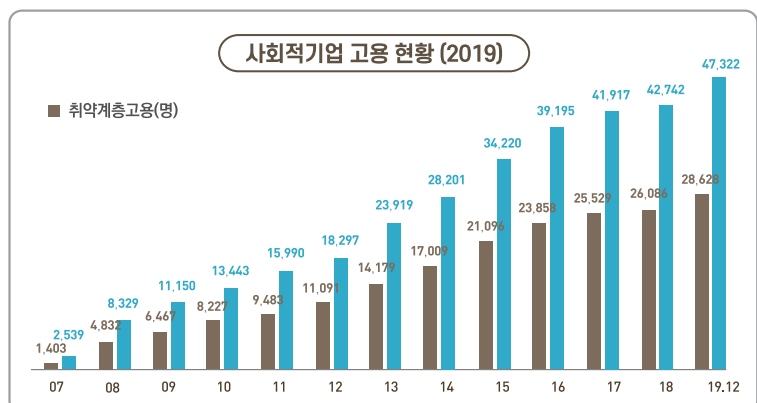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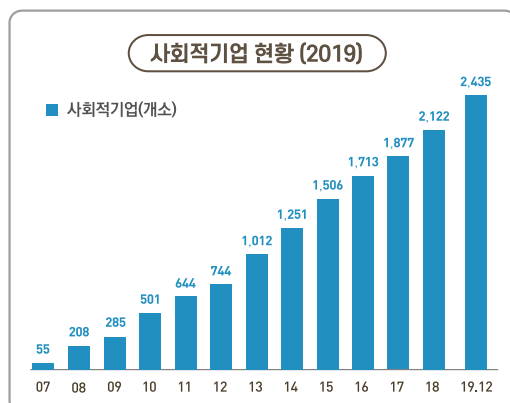
개념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사회적기업의 유형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2018년까지 '기타형'으로 분류)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자격부여	고용노동부	광역시/군, 관련부처
인증/지정 요건	1. 조직형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작동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3. 사회적 목적 실현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해당 없음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수입 ≥ 노무비 * 50%)	
	6.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작동
	7. (상법상 회사)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신청	연중접수(격월을 원칙으로 실시)	연중 1~2차 일정공고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최대 3년



사회적기업 근로자 세부 구성 (201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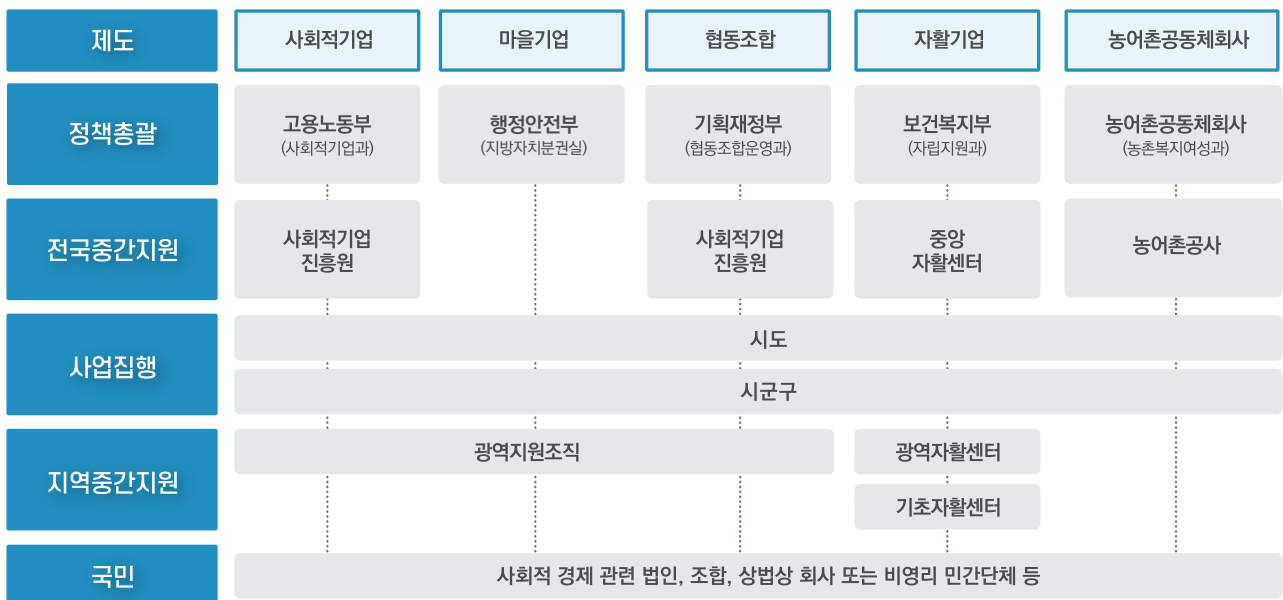
총 근로자수	일반근로자 (39.5%)	취약계층(60.5%)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기타	계
47,322	18,694	17,130	6,624	2,860	2,014	28,628

6.3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부처별 · 사회적경제 유형별로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법 제정 · 기본계획 수립 등 직 · 간접 지원정책 마련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경영 · 재정지원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육성법(고용노동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등
- 각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 · 시행: 협동조합 기본계획(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고용노동부) 등

사회적경제 지원 체계 현황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구분	직접지원	간접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 인건비 • 사회보험료 • 사업개발비	• 판로지원 • 교육 및 홍보 • 컨설팅 • 창업 및 운영 지원 • 정책자금 융자 등	• 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 • 모태펀드 운영 등
협동조합	-		-
마을기업	• 사업비		-
자활기업	• 인건비 • 사업비 • 창업자금 • 컨설팅비용		•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토론하기

-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사회적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및 제도들이 더 필요할지, 사회적경제기업을 실제로 운영할 경우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할지에 관해 논의해 봅시다.
- 국내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어떤 부분이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면 좋겠는지, 현행 제도와 정책들 중 가장 좋은 정책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한 가지씩 제시하도록 한 후 그 이유를 놓고 토론해 봅시다.

7강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가?





주 제	7강.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해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현장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생태계 조성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대해 학습한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정의, 의의, 필요성,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 •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례들을 살펴본다. • 사회적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인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살펴본다.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협력,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의의,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해 알아본다.

7.1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정의

- “자원을 공급하는 자본인프라와 사회경제적 활동의 환경적 조건들, 그리고 활동 주체인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 관계”(CASE 2008)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3조 5항)

시장경제생태계와의 차별성

-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수요와 공급 주체들에 더해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부문의 폭넓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경쟁에 더해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생태계와 차별성을 지니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내에는 공동체·마을 내 교환이나 사회적경제조직간 거래와 같은 내부적 거래시장도 존재함

사회적경제 생태계: 의의와 필요성

-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 선순환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게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진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당사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 & 강화하는 것 ⇒ 이 네트워크 규모나 구조,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과정에 따라 생태계가 달라질 수 있음
 - 네트워크가 구성되려면 참여자들의 합의된 원칙(규칙)이 필요, 동시에 자원을 공유할 때만 효과적으로 기능.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참여자들은 자원, 경험, 기술, 공간 등을 공유하고, 공유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만 지속가능
- 사회적경제 지역화: 자원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당사자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사회적경제의 지역화”
-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 이에 대한 인식 확산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사회적경제 참여자들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공동 활동공간 속에서 경험을 공유, 협력과 연대(호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 ⇒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히 만들 수 있음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생태계: 유형 구분

- 생태계 조성 주체와 주체간 연계 방식에 따라서 정부 주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지역사회 주도형 생태계로 구분)

생태계 요소	정부주도 생태계	지역사회 주도 생태계	
		네트워크 주도형	시민사회 주도형
물적자원	융자지원	협동금융	현물, 현금기부
인적자원	인건비 지원	공동교육 · 인력개발	시간기부(자원봉사)
기술(지식)자원	사업개발비 지원	공동 기술협력	지식기부
경영 노하우	경영 컨설팅 지원	멘토형 교차컨설팅, 공동마케팅	프로보노(재능기부활동)
소비시장	공공기관우선구매	협동적 내부시장	윤리적 소비시장
사회적 기반	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 기반조성	

* 주: 정부주도형 생태계 조성 내용은 사회적 기업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함

* 자료: 김을식 외(2011), 이강익(2012)에서 작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례들

외국의 사례: 네트워크 주도형 이탈리아 트렌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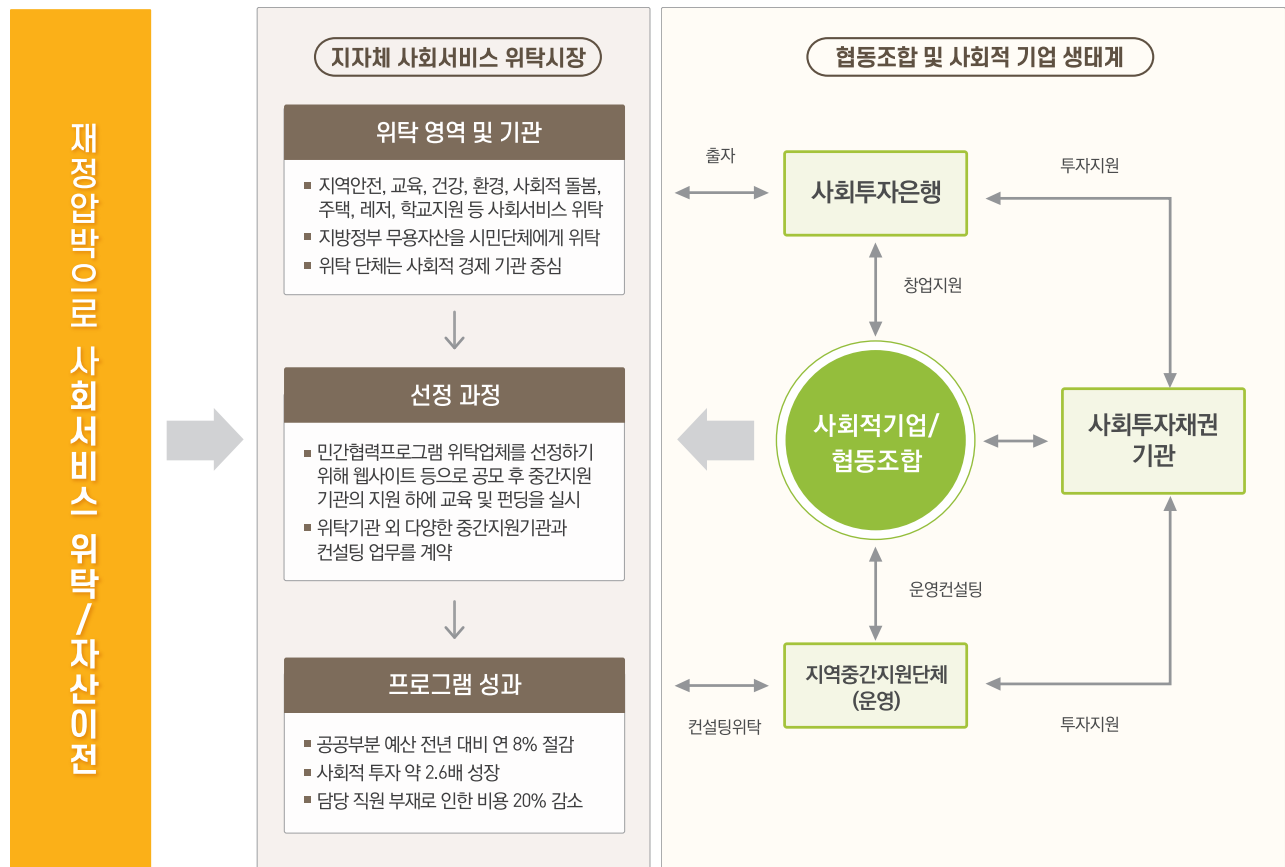
- 1870-1888년 당시 주민 40만명 중 2만4천명이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으로 이주할 만큼 힘들었고, 지역공동체 발생 ⇒ 이민과 잔류의 기로에 선 주민들은 독일신협과 영국 로치데일협동조합으로부터 해법을 찾아 생존의 절실함을 가지고 조직화를 시작
-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은행, 사회적협동조합 등 개별 협동조합들이 잘 발달. 볼로냐와 함께 동종 및 이종 협동조합들 간의 수평적, 수직적 네트워크 결성으로 협력과 지원이 활발한 강력한 전통을 계승
- 네트워크형 생태계 조성은 트렌토 지역의 6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트렌토협동조합연맹
※ 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고, 분야별로 구성된 중간조직인 20여개 컨소시엄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과 연계
- 트렌토 주는 이러한 연맹의 역할을 통해 거대자본이 아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가공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협동조합방식의 소비와 금융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 협동조합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단위: 개)

구분	전국조직	연맹	컨소시엄 (19개)	개별협동조합 (542개)	계
	REGACOOP	Cooperazione Trento	소비자 협동조합	FAMIGLIA	79
			농업분야 협동조합	Val Di Gresta Cavit (12개) Melinda (16개)	92
			사회적협동조합 · 노동자 · 서비스 · 주택	SPES Open Group	295
			금융		57
			유통		106

외국의 사례: 시민사회주도형 영국

- 1988년 정부와 시민사회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명문화한 제3섹터 활성화를 위한 협약(The Compact)
- 주정부 산하에 사회적경제를 관리하는 부서(제3섹터청)를 설치(2006년, 2010년 시민사회청으로 명칭 변경)하여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발전
- 재정압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정부주도 공공부문서비스를 지역단위의 사회적 경제단체에게 위임하면서 생태계를 조성하기 시작
- 지역개발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에게 위탁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분사·개발
-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운영기관인 사회투자은행, 자산이전 전문지원기관 로컬리티(Localcity), 지역사회 창업컨설팅 지원기관 커뮤니티 링크(Community Link) 등 민간 중간기관들간 협력체계



우리나라 사례: 서울시

- 생태계 조성의 기본원칙: 시민(사회)의 자조와 협동을 통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민사회 안에서 우선 해법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 실현
- 거버넌스 : 사회적경제 민관협력체제(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사업계획·예산 운영에서 민관 공동수립·공동집행·공동책임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에 위탁·운영, 계약에 의한 높은 사명감과 전문성,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단과 센터 설립지원

- 사회적경제 특구조성: 사회적경제 특구 지원사업 수행, 사회문제 해결 전략 분야 중심으로 혁신형 사업 선정 지원
- 사회적금융: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 조성(2013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에 최대 5년, 연 2-3% 이자로 융자지원, 2018년부터는 임팩트투자조합을 결성, 출자)



7.2 당사자조직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조직 네트워크

- 연대가 중요한 원리라는 점 이외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조직 혹은 관련 조직들과 사이의 네트워크는 중요
- 자율성과 독립성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대와 협동에 의해 지지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의조직이나 연대체의 역량이 중요
-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 공공부문의 영향과 의존을 줄여간다는 점에서도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강화 중요
- 연합회를 통한 금융 기능(연대기금을 조성)을 통해 경영위기에 대응하고, 신규조직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혁신 등에 사용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음
- 형태: 유형별, 업종별, 지역별 연합회
-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ex) 협동조합연합회(이탈리아 레가쿱 등)

당사자조직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

중간지원조직

- 일선의 자발적, 공동체적 조직(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들이 그들의 과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support), 개발(develope), 연계(co-ordination), 대표(represent), 촉진(promote)하도록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지식을 제공하는 조직(OPM & Compass Partnership, 2004)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지자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①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②사회적경제 조사·교육·연구 및 정책개발, ③사회적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경영지원, ④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교류 촉진 (송두범, 201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종·지역 및 전국 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제 20조 4항)
-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분류기준	조직형태		
조직성격	관 주도형(공설공영)	민간 주도형 (공설민영, 민설민영)	위탁형
운영기간	상설형		임시형
지원형태	종합지원형		특정분야지원형
활동범위	광역형		지원형

- 활동범위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현황

구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예산 지원 주체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유 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선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도 지정)	사회적경제지원센터(69개) ※ 공동체 지원센터(131개), 도시재생지원센터(193개) 등
	마을기업 지원센터(국비·지방비 50:50, 시·도 지정)		

※자료: 관계부처합동(2019)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협력

사회적경제와 비영리 민간재단의 협력

- 사회적경제조직+NPO의 재능기부 방식 이외에도 기업들이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자체가 사회적경제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되거나, 비영리 민간재단이나 결사체(association)가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등 협력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 혹은 비영리단체와 협력은 사회적 가치인 공익성과 공공성 확대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하려는 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 ⇒ 양자는 다른 어떤 사회적경제조직보다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전략이 필요

사회적경제와 비영리 민간재단의 협력

- 사회투자지원재단: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동체기금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함께 만들기 사업, 사회적회계 컨설팅 교육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 마이크로크레딧 전문인력양성교육사업 등을 추진
- 함께 일하는 재단: 대표적인 민간 중간지원조직으로서 2003년 설립,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노동부 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활동.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환경오염, 교육의 불평등, 취업난, 주거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발

(사)삼진이음의 사례

- 2016년부터 (주)삼진어묵에 의해 비영리 사단법인 삼진이음 설립. 부산 영도구 봉래동 지역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 현재는 7명의 직원으로 법인 운영 중
-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봉래동 지역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대통전수방 프로젝트’) 영도구 봉래 1동에 2020년까지 국비·시비 등 182억원을 투입해 진행
-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평소 공장 창고군 지역에서 M마켓 연3~4회 개최, 봉래시장 상인, 젊은 셀러들,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
- 행정과 예산은 영도구가, 프로그램 운영은 비영리단체 삼진이음이 수행

사단법인 **삼진이음**

미션 - 사람과 기술, 그리고 지역을 연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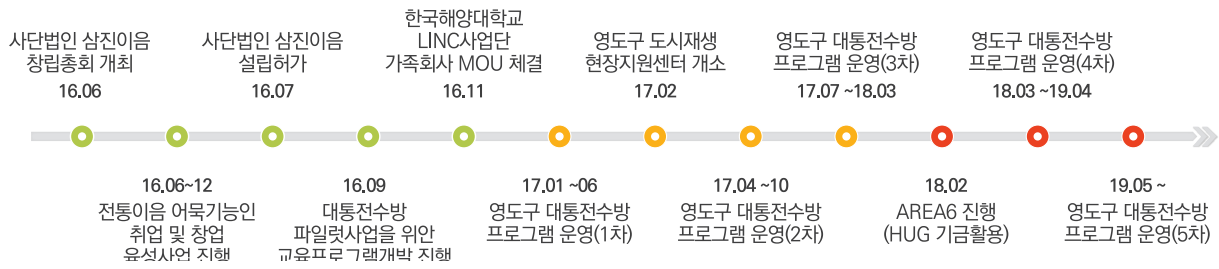
목표 -

지역기반
사회적 가치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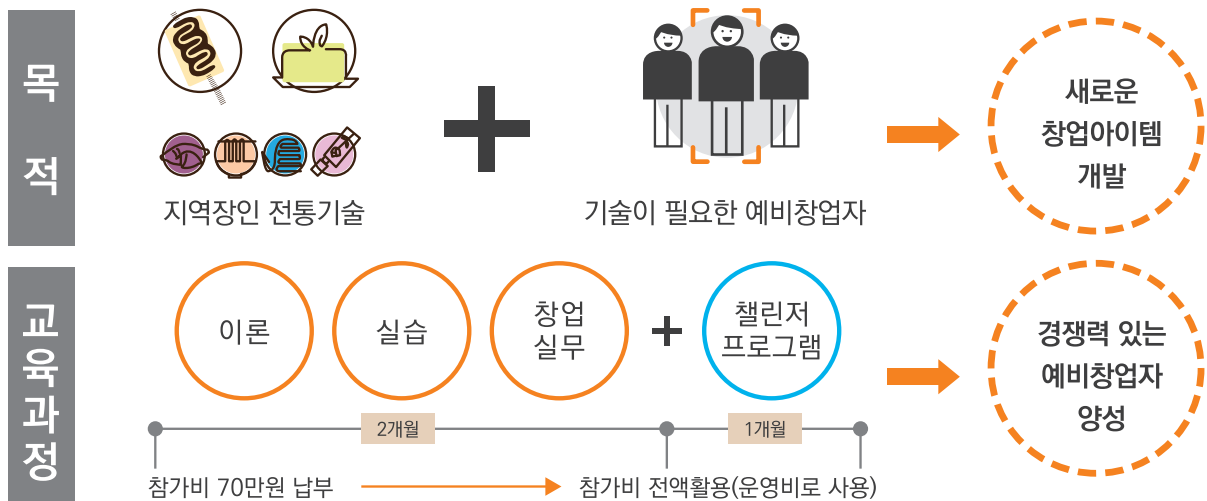
비즈니스 모델
실험

삼진의
브랜드 가치 제고

<삼진이음 연혁>



영도구 일원에 형성된 전통산업기술을 간직한 노포(老鋪) 및 상인들의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여 창업을 장려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민관협력 거버넌스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의미와 의의

- 정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제공하는 사람들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이루어 작업하는 방식”
- 더 많은 상의(consultation)나, 더 많은 참여(participation)를 넘어 : 협치의 가장 큰 강조점은 사람들의 스킬과 경험을 공공 및 자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도록 추동하고, 동시에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기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공유하는 것 (NEF,2008).



지역차원의 민관협치 거버넌스

- 지역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경제가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2010년 경부터임 ⇒ 본격적인 민간주도의 거버넌스는 2012년 이후 운영 중인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 이후 여러 지역에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이 시도되었고, 일정 정도의 성과도 거두고 있으며,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의 거버넌스가 구성, 운영 중
-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례에 근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설치 운영
- 민선 7기 지방선거 이후 각 지역별로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과정이 진행 중



7.3 관련 법률과 조례

관련 법률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서 본격화
-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지원제도를 결합하여 사회적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 ⇒ But,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다양한 목적의 기업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9년 8월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정안이 만들어짐

구 분	인증제	등록제
절 차	고용노동부에 인증 신청 → 심사(인증소위, 육성전문위) → 관보 게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시·도에 신청 → 등록증 발급(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임근거 마련)
요 건	【기본 요건】 ① 조직 형태(법인일 것) ② 정관, 규약을 갖출 것 【징표적 요건】 ③ 사회적 목적 실현 ④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 구조 ⑤ 배분 가능한 이익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실적 요건】 ⑥ 유급 노동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⑦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기본 요건 및 징표적 요건은 유지 ▶ 실적 요건은 완화·폐지 ⑥ 유급 노동자 고용 요건 폐지(단,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명이상 고용, 요건유지) ⑦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폐지
정부지원	(재정지원) 각 지자체에 신청 → 지자체 심사 후 교부(우선구매) 인증 사회적기업 중 공공기관에서 자율 구매(권고율 3%)	(1단계) 고용노동부 등록기업 평가* * 평가 결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통보 → 지원에 반영 (2단계) 현 재정지원, 우선구매 절차와 동일(지자체, 공공기관)
보 고	연 2회(4월, 10월) 사업보고서 제출(모든 사회적기업)	연 1회(4월) 사업보고서 제출 및 내용 간소화(모든 사회적기업)
평가·경영고시	▶ 사업보고서를 통해 활동, 실적 등 평가 ▶ 자율경영공시(선택사항)	▶ 정부지원 신청기업에 한해 기존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평가 ▶ 정부지원 신청기업은 경영공시 의무화
투명성	재정지원 사업 신청 시에만 부정수급 교육 등 의무화(지침)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신청 시에도 부정수급 교육 등 의무화(법적근거 신설)

관련 법률과 조례

관련 법률

- 2012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협동조합기본법은 기존의 8 개 개별법과 더불어 단일의 기본법 체제를 갖춘 법으로서 엄연한 권리주체 법인격에 있어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법인의 하나로 인정하고, 단체법 또는 기업법 측면에서 협동조합의 순기능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함
- ①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이 탄생하고, 특별법 상의 규정 없이도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음

- ②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 즉, 협동조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
- ③ 신규 창업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음 ⇒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청년창업, 소액창업 등 신규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돌봄 노동, 대안학교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을 통하여 복지사회와 사회경제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됨
- 2019년 8월 기준, 사회적경제 3법을 비롯, 사회적농업법 등이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거나 계류 중에 있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 등도 진행될 예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이후 사회적경제 관련조례가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2019년 8월 기준으로 총 200개의 사회적경제 조례(시도 30개, 시군구 170개)가 설치·운영 중

지역	사회적경제 조례 현황 ※ ()는 개별 기업 지원 조례 포함시					
	합계	소계	시 · 도	시 · 군 · 구		
			조례명	소계	운영 지역	조례없음
전국	200 (361)	30 (46)	설치 시 · 도: 16/17 (17/17)	170 (315)	143/226 (225/226)	1개 지역
서울	35 (54)	4 (6)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 사회투자자금 조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31 (48)	20/25 (25/25)	-
부산	7 (29)	2 (4)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5 (25)	3/16 (16/16)	-
대구	5 (17)	2 (4)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3 (13)	3/8 (8/8)	-
인천	12 (13)	3 (3)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9 (10)	9/10 (10/10)	-
광주	9 (11)	2 (4)	•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7 (7)	5/5 (5/5)	-
울산	4 (10)	1 (3)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3 (7)	3/5 (5/5)	-

지역	사회적경제 조례 현황 ※ ()는 개별 기업 지원 조례 포함시					
	합계	소계	시 · 도	시 · 군 · 구		
			조례명	소계	운영 지역	조례없음
전국	200 (361)	30 (46)	설치 시 · 도: 16/17 (17/17)	170 (315)	143/226 (225/226)	1개 지역
세종	2 (2)	2 (2)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 사회투자자금 조례	-	-	-
경기	36 (49)	3 (3)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33 (46)	28/31 (31/31)	-
강원	14 (26)	1 (1)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13 (25)	11/18 (18/18)	-
충북	3 (18)	1 (3)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2 (15)	2/11 (11/11)	-
충남	14 (21)	2 (2)	•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12 (19)	9/15 (15/15)	-
전북	6 (25)	1 (3)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5 (22)	4/14 (14/14)	-
전남	22 (23)	2 (2)	•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 (21)	20/22 (21/22)	신안군
경북	15 (26)	1 (1)	•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조례	14 (25)	14/23 (23/23)	-
경남	11 (25)	1 (1)	•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조례	10 (24)	9/18 (18/18)	-
제주	2 (4)	2 (4)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	

토론하기

-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당사자 조직간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형성이 왜 중요한지를 정리해 봅시다.
-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간 협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민관협력 방식과 관련해 애로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토론해 봅시다.

8강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마음가짐과 역량이
요구되는가?





주 제	8강.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마음가짐과 역량이 요구되는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요구되는 마음가짐으로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때 현장에서 어떤 업무 역량들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백화제방의 정원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동기를 지닌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각양각색의 연대와 제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라는 온갖 종류의 꽃을 만들어내는 ‘백화제방’의 정원에 비유 가능
- 사회적경제를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는 건강한 개인주의와 공정한 경쟁질서 안에서 작동되는 ‘윤리적 시장’, 외부와의 접촉과 교류에 적극적인 호혜의 ‘열린 공동체’, 공익 실현에 충실한 ‘유능한 정부’가 골고루 중요
- 이들 각 영역에서 자발성과 헌신성과 사명감과 장인정신과 같은 내재적 동기들로 충만한 시민들이 각자의 필요를 협동의 힘을 통해 충족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면서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을 가꾼다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
- 이때,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사업을 통해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려 하거나, 사람들의 채워지지 못한 욕구와 해결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려 할 경우, ‘사회적기업가정신’이 겸비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임

사회적기업가정신

- 사회적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은 사회적기업가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공통의 마음가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요구되는 태도나 자세라고 정의 가능
- 사회적기업가정신은 크게 공감·혁신·실용 등 세 가지의 상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상위요인들은 다시 세 가지씩의 하위 요인들로 구성(사회적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에 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오현석·이상훈·류정현·박한림·최윤미(2015). “사회적기업가정신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4(2), 2015, pp. 109~133)
-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일지 확인해보기로 함



8.1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 공감

첫째, 공감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임과 동시에 타인 지향적인 특징을 지닌 친사회적 동기로,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사회문제 인식으로 나뉨

-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감정·생각을 나의 경험에 비춰 잘 이해하며,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통해 보람을 얻는 능력
-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울분을 느끼며,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많아 안타깝게 느끼는 능력
- **사회문제 인식**은 공감의 수준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어떤 사회문제가 왜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능력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 혁신

둘째,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아이디어 창출, 혁신 실행, 의미창조의 세부 요소로 나뉨

- **아이디어 창출**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가능한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찾으려 애쓰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의미함
- **혁신 실행**은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을 위해 적절한 계획이나 일정을 수립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고려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변화·발전시키는 자세임
- **의미 창조**는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에서 사회적 의미를 찾아내고, 아이디어의 실행이 고객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이나 이해자에게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여기는 것임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 실용

셋째, 실용은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을 찾아내려는 마음가짐 또는 현실적인 쓰임새를 중요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유용성과 유연성 그리고 지속성으로 구성

- **유용성**이란 소비자와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편리함과 유익함을 제공하고, 소비자와 수혜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영상의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직결
- **유연성**은 문제 상황에서 여러 해결책을 동원하고, 다양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장을 구상하며, 회사의 장기적 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하는 자세를 의미
- **지속성**은 양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공유되기를 기대하며,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경영전략을 기꺼이 수정하는 것과 연관

8.2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때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다 구체적인 업무 역량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있음
- 사회적기업가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찾아내고 체계화한 대표적인 연구를 토대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음
(박소연, “사회적기업가의 역량모델 개발연구”, 『HRD 研究』, 12(2), 2010, pp. 67-87)
-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역량군은 기업가정신, 문제해결 능력, 조직경영 능력, 대외 역량, 사회적 책임감의 5개로 세분됨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첫째, 기업가정신에는 도전정신, 신사업 발굴역량, 사업에 대한 열정, 고품질 지향성이 포함

- **도전정신**이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는 역량이고, 신사업 발굴역량은 창조적이고 우수한 수익모델을 기획하는 역량임. 사업에 대한 열정은 시행하기로 결정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몰입하고 분투하는 마음가짐이고, 고품질 지향성은 디테일의 장악 속에서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일종의 목적으로 추구하는 장인정신과 같은 태도임

둘째, 문제해결 능력에는 정보관리 능력, 기회창출 능력, 전략적 대안 도출력이 포함됨

- **정보관리** 능력은 사업과 관련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능력이고, 기회창출 능력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전략적 대안 도출력은 예상과 다르게 사태가 전개될 경우 상황에 적합한 대안적 전략을 도출하는 능력임

셋째, 조직경영 능력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역량인데, 여기에는 경영 전문성, 분야 전문성, 직무설계 능력, 맞춤형 인사관리 능력, 리더십이 포함됨

- **경영 전문성**은 재무·회계·마케팅 등 경영과 관련한 업무 역량인 데 비해, 분야 전문성은 해당 업종이나 프로젝트에 관한 이해도 및 장악 능력을 의미함. 직무설계 능력은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직무를 설계하는 능력이며, 맞춤형 인사관리 능력은 조직 구성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과업부여 및 관리 능력이고,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충성심을 높이고 조직 및 사업에 몰입시키는 역량임

넷째, 대외역량에는 자본조달 능력, 협상력, 고객관리 능력, 네트워킹 능력 등이 있음

■ **자본조달 능력**은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이고, 협상력은 파트너와의 협상을 통해 사업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뜻한다. 고객관리 능력은 고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이며, 네트워킹 능력은 정부·지역·기업·지원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며 협업하는 능력을 뜻한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감에는 신뢰 구축력과 사회적 사명감 등이 있음

■ **신뢰 구축력**이란 믿음·정직·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윤리적 경영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하는 능력이며, 사회적 사명감은 사회적 미션이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일관된 관심과 지향을 의미함

토론하기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를 한 문장/한 마디로 내려보도록 하고, 각자가 내린 정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사회적경제 기초과정 수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업종이나 분야에 관심이 생겼는지 등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부록

교수·학습 과정안



교육과정 매뉴얼_01

주 제	1강. 왜 사회적경제인가?
교육목표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들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알아봄으로써, 사회적경제 입문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돕는다.
세부목표	• 인간이 사회를 통해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이해한다. • 공동체, 시장, 정부의 작동원리 및 장단점을 이해한다. •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이러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사회적경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도입(15분)	• 수강생 각자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및 기대하는 바를 이야기한다. 강사는 이를 메모하고, 교육 중 활용하며, 교육과정이 종료될 때 비슷한 질문을 던져 생각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해본다.
전개 (80분)	1.1. 우리가 필요와 욕구에 주목하는 이유(5분) • 우리의 필요와 욕구들에 무엇이 있고, 필요와 욕구의 충족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본다. • 필요와 욕구의 충족은 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1.2. 인간은 사회를 통해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15분) • 사회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사회성을 띠는지를 살펴보고, 사회가 공동체, 시장, 국가로 구성됨을 확인한다. • 사회를 이루는 공동체, 시장, 국가의 핵심적인 작동원리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 셋 사이의 밸런스에 주목해본다. 1.3.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들(20분) • 오늘날의 주요한 사회문제들을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영세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업환경, 구조적 실업의 확대, 취약계층의 사회적경제적 배제와 치솟는 복지비용, 고령화와 노인빈곤, 육아·보육·간병·의료비용 증대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 지방소멸과 지역경제의 쇠퇴, 지역격차 확대와 공동체의 해체, 환경·재해 등 사회적 위험의 확대 등으로 정리해 그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다. 1.4. 사회적경제에 의한 사회문제들의 해결(40분) •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려 한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의 사례들을 각각의 사회문제들과 대비시켜 본다. 지역과 협력해 전주 비빔밥으로 취약계층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천년누리푸드,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터전, 베어베터, 레드오션인 간병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다솜이재단, 경제적 약자들이 자조와 협동의 힘으로 대자본 제과점에 맞서고 있는 동네빵네협동조합, 조합원의 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모와 아이와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해와 달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혁신적 주택정책 & 느슨한 공동체 실험의 만남인 위스테이 등의 사례를 살펴본다. •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들에 대한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으며, 공동선의 달성 및 좋은 사회를 이끄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토론 (20분)	• 여러 사회문제들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지, 사회적경제 조직체들 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었나,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놓고 수강생들의 토론을 유도한다. 교수자는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고, 교육생들이 제시한 답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비교하며 이 자체도 토론의 재료로 삼도록 한다.
마무리 (5분)	• 이번 시간의 목표가 사회적경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갖는지를 환기시키고, 그에 답할 수 있도록 한다.
유의사항	• 적합한 사례 제시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유도함으로써 초심자나 영리부문 경제주체들도 사회적경제의 문제의식이거나 역할에 대해 거부감 없이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사회적경제 사례를 소개할 때 강사가 4개 정도를 취사선택하고, 수강생들의 토론이나 의견 개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교수자는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매뉴얼_02

주 제	2강.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와 핵심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을 알아보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인문학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관한 각자의 상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고 핵심 키워드들을 검토한다.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에 관해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의 뿌리를 역사와 철학을 통해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가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경제라는 주장의 의미를 살펴본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도입(5분)	(지난 강의 리뷰) • 1장에서는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이유와 사회적경제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례를 다루었음을 상기한다. (학습 목표 제시) •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 핵심 키워드를 검토하여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을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철학을 통해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경제로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한다.
전개 (90분)	2.1.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핵심 키워드들(30분) • 국제협동조합연맹,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에 제시된 사회적경제 관련 정의를 살펴본다. • 이들 정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상호성, 공익성, 잉여금의 분배제한, 민주적 통제, 자율과 독립의 의미 및 중요성을 확인한다.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영리·비영리의 구분보다는 공공성(=상호성+공익성)의 구분 및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는 점, 사회적 가치는 공공성의 달성 또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다르지 않은 의미라는 점 등을 확인한다. 2.2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30분) • 협력, 우애, 호혜, 연대, 공동체 등의 의미와 의의를 사상가들의 발언이나 역사적 사례 등을 통해 이해한다. 2.3. 철학과 역사로 보는 사회적경제(30분) • 거래자들 vs. 수호자들, 거래 vs. 취득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인간의 사회적 분업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이들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덕수칙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본다. • 살림살이로서의 경제 vs. 돈벌이로서의 경제, 실체적 경제 vs. 형식적 경제의 대립을 통해 인류 역사상 경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경제는 전자와 친화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며, 사회적경제는 중용의 태도와 연관성이 높다는 점을 살펴본다. • 사회적경제가 호혜·교환·재분배의 삼각형 속에서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토론 (20분)	• 사적 이익 추구, 돈벌이, 경쟁 등이 사회적경제와 양립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때의 원칙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사회적경제가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이란 주장에 동의하는지, 사회적경제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 있는지 등을 놓고 토론을 유도한다. 교수자는 단답형으로 대답가능한 형태로 질문을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고, 교육생들이 제시한 대답들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비교하며 이 자체도 토론의 재료로 삼도록 한다.
마무리 (5분)	• 사회적경제의 핵심 개념들, 핵심 정체성들, 살림살이로서의 경제와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경제 등 개념을 간단히 확인한다.
유의사항	• 수강생들이 사회적경제에 관한 특정한 관점을 강요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도 유념한다. • 교수자는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매뉴얼_03

주 제	3강. 사회적경제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어떤 해법을 주는가?
교육목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경제가 우리 모두의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세부목표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이 복지국가였다는 점을 이해하고,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살펴본다.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이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커뮤니티 케어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유효한 해법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생애주기별로 확인한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도입(5분)	(지난 강의 리뷰) • 2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주요 개념, 주요 정체성, 좋은 삶에 대해 살펴보았음을 상기한다. (학습 목표 제시) •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이 복지국가였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살펴본다.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커뮤니티 케어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유효한 해법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생애주기별로 확인한다.
전개 (90분)	3.1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 안전망(10분) • 사회적 위험이란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며,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한다. 3.2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복지정책(30분)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을 살펴보고, 포괄적 복지 패키징정책이 그 대응책임을 확인한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다. 3.3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경제의 해법(50분) •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위험을 확인하고, 공동육아협동조합과 학교협동조합이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어떻게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청년기의 사회적 위험이 버거운 채무부담, 높은 주거비용, 오랜 구직 기간 등임을 확인하고, 대안적 자조금융, 사회주택, 청년과 지역사회의 협업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본다. • 중·장년기의 사회적 위험이 일과 가정의 양립, 자녀교육, 주거, 가족부양, 실직 및 조기퇴직, 노후준비와 관련한 위험임을 확인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협동조합과 플랫폼협동조합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알아본다. • 노년기의 사회적 위험이 다양한 돌봄 및 교육·일·여가의 양립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회적경제가 장년층 및 노년층 은퇴자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공하는지를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토론 (20분)	•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해법으로 소개된 여러 시도들 중 가장 인상적인 방식을 하나씩 선정해 토론을 유도하거나,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사회적경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교수자는 단답형으로 대답가능한 형태로 질문을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고, 교육생들이 제시한 대답들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비교하며 이 자체도 토론의 재료로 삼도록 한다.
마무리 (5분)	• 복지국가 방식의 사회적 위험 관리와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회적 위험 관리를 비교하며 마무리한다.
유의사항	• 앞으로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적경제가 대립적이거나 양자택일 관계로 오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교수자는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매뉴얼_04

주 제	4강. 사회적경제는 살기 좋은 지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가 지역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왔고, 또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 공동체의 부, 시민자산화, 사회적자본 등을 매개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의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다양한 목적 아래 수행한 지역기반 활동들을 살펴본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도입(5분)	(지난 강의 리뷰) • 3강에서 사회적경제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유효한 해법이었음을 상기한다. (학습 목표 제시) •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기반으로 발전해왔고, 또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서 지역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사회적경제가 지역순환경제, 공동체의 부, 시민자산화, 사회적자본 등을 매개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의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다양한 목적 아래 수행한 지역기반 활동들을 살펴본다.
전개 (90분)	4.1. 사회적경제, 지역 그리고 공동체(20분) • 사회적경제와 지역의 상호관계에 관한 다양한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살펴본다. • 지역 관련 정책적 관심이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적경제 방식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4.2.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20분) • 지역순환경제의 핵심이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삶의 터전을 만드는 과정임을 확인한다 • 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동소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시민자산화가 공동체의 부(富)를 확보하는 유효한 방법임을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는 지역민들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이자 플랫폼이 됨으로써 지역 내에 사회적 자본을 늘리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4.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의 성공 사례들(30분) • 스페인 바스크지역(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네트워크화된 협동시스템), 캐나다 퀘벡(지방정부, 사회적경제, 노동조합의 협치), 미국 클리블랜드(앵커기관 중심의 지역순환경제 형성) 등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고,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해외의 모범적인 사례를 설명한다. • 국내에서는 협동조합 네트워크로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형성한 원주 사례, 복합클러스터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아이쿱 생협 사례, 안성의 지역커뮤니티 케어시스템 구축 사례, 완주의 로컬푸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순환경제 형성 사례,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한 성미산 마을 사례를 살펴본다. 4.4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목적별 지역기반 활동들(20분) •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소규모 집단, 마을, 도시 등 공동체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행 중인 다양한 지역기반 활동들을 살펴본다. 사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 클러스터·특구 조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협동화 사례,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과 공동체 형성 사례, 지역재생과정에서 지역자산화와 사회적경제가 결합한 사례 등을 살펴본다
토론 (20분)	• 사회적경제에서 왜 지역이 중요한가,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발전 사례들 중 우리 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어느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을 통해서 응답하도록 하고 교육생들이 제시한 답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교육생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각자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도 토론해본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러한 지역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마무리 (5분)	• 교육 목표에서 제시된 내용에 맞추어 강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풍성하게 만들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강의를 마무리한다.
유의사항	• 제시된 사례들에 대해 평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수자는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매뉴얼_05

주 제	5강. 사회적경제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교육목표	사회적 미션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특수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작동 및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한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운영원칙,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들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 다양한 조직형태들에 대해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체적인 작동을 단체로서의 측면과 기업으로서의 측면으로 구분해 검토한다. •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적 노력에 관해 살펴본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도입(5분)	(지난 강의 리뷰) • 1-2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이해하고, 3-4장에서는 사회적경제가 개인의 삶, 지역과 공동체에 어떤 역할과 공헌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였음을 상기한다. (학습 목표 제시) •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미션을 상업활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조직체들로, 사회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독특한 원칙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조직임을 이해한다. •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 및 갈등, 두 목적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혁신적 노력들을 살펴본다.
전개 (90분)	5.1.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과 운영(30분) •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운영원칙,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들 사이의 균형 및 보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조직적, 법적 형태를 살펴본다. 5.2. 사회적경제기업의 구체적 작동(30분) • 단체로서의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을 미션, 사회적 편익, 지배구조, 지역밀착성의 네 범주에서 이해한다. • 기업으로서의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을 시장, 생산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적 운영 분석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해하고 하이브리딩협동조합, (주)모어맨의 사례를 통해 적용해본다. 5.3.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30분) •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동시 추구는 쉽지 않은 도전이며, 이를 위해 혁신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 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혁신사례를 통해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동시 추구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토론 (20분)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어떤 조직형태를 선택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지,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사례를 찾아보고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경제적 목적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사회적 목적 달성에 가장 성공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관해 토론을 유도한다. 교수자는 단답형으로 대답가능한 형태로 질문을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고, 교육생들이 제시한 대답들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비교하며 이 자체도 토론의 재료로 삼도록 한다.
마무리 (5분)	• 교육 목표에서 제시된 내용에 맞추어 강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추구는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추구 사이의 갈등과 조화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통적 과제이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혁신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한다.
유의사항	•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추구를 설명할 때, 두 가치가 항상 상충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교수자는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매뉴얼_06

주 제	6강.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제도와 정책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제도화 하였는가에 따라 국가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이해한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과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본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도입(5분)	(지난 강의 리뷰) • 앞장(5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운영원칙,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들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 다양한 조직형태들에 대해 알아보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혁신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상기한다. (학습 목표 제시) • 사회적경제 발전과정을 제도화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한다.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어떤 유형이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전개 (90분)	6.1. 사회적경제의 제도화 과정(30분) • 사회적경제는 국가별 역사적 맥락, 기존의 제도, 시민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이해한다. • 국내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을 제도화되기 이전의 풀뿌리 사회적경제의 태동기(일제강점기~1994년), 생산공동체운동의 제도화 시기(1995년~2006년), 사회적기업 제도화 시기(2007년~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및 마을기업 제도화 시기(2013년~현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6.2. 사회적경제 제도화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30분) • 국내 대표적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대해 살펴봄과 각각의 정의, 유형, 설립요건은 무엇이고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본다. 6.3.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30분)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을 넘어 전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부처별 정책과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토론 (20분)	• 국내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어떤 부분이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면 좋겠는지, 현행 제도와 정책들 중 가장 좋은 정책과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을 한 가지씩 제시하도록 한 후 그 이유를 놓고 토론한다. •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한지 의견을 이야기한다. • 교수자는 단답형으로 대답가능한 형태로 질문을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고, 교육생들이 제시한 대답들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비교하며 이 자체도 토론의 재료로 삼도록 한다.
마무리 (5분)	• 교육 목표에서 제시된 내용에 맞추어 강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과 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언급하고, 민-관 협력하여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다.
유의사항	• 지원 정책과 제도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측면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활용해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주체자로 활약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교수자는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매뉴얼_07

주 제	7강.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해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 특성은 무엇인지, 현장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생태계 조성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대해 학습한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정의, 의의, 필요성,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 •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례들을 살펴본다. • 사회적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인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살펴본다.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협력,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의의,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해 알아본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도입(5분)	(지난 강의 리뷰) •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제도 및 정책의 핵심 내용 및 의의를 확인한다. (학습 목표 제시) •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정의, 시장경제 생태계와의 비교, 의의, 필요성, 유형 등에 대해 학습한다. • 국내외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례들을 살펴본다. • 사회적경제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인 당사자조직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에 대해 살펴본다.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의 협력,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의의,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대해 알아본다.
전개 (90분)	7.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도들(40분) •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무엇이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왜 중요하며,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 학습하고, 시장경제 생태계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의 대표적 사례들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당사자조직, 현장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민관협력 등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이탈리아 트렌토의 네트워크주도형, 영국의 시민사회주도형,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본다. 7.2 당사자조직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40분) •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와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자립화 등 여러 측면에서 당사자조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당사자조직 협의체, 연합회, 지역 협의회 등 다양한 현장 네트워크의 의의, 현황, 성공사례 등을 살펴본다. • 중간지원조직의 의의와 역할, 유형, 현황 등을 살펴본다.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역량 강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본다. •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의미와 의의를 확인하고, 지역 차원에서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어떻게 수행 중인지 살펴보고, 바람직한 민관협력의 사례를 확인한다. 7.3 관련 법률과 조례(10분) •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살펴본다. 이 들 법률 및 조례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토론 (20분)	•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당사자 조직간 네트워크의 형성이 왜 중요한지,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와의 바람직한 민관협력 방식과 관련해 애로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토론해본다. 교수자는 단답형으로 대답가능한 형태로 질문을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을 통해 응답하도록 하고, 교육생들이 제시한 대답들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공유·비교하며 이 자체도 토론의 재료로 삼도록 한다.
마무리 (5분)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이 직접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면서 다방면에서의 민간 참여 및 민관협력이 권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 한다.
유의사항	• 생태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치우치지 않고, 사례 중심의 설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강의한다. •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강조가 법률이나 정책에 대한 의존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와 협치를 높이는 과정을 강조한다. • 교수자는 interactive tool(Mentimeter 혹은 다른 tool) 사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매뉴얼_08

주 제	8강.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는 어떤 마음가짐과 역량이 요구되는가?
교육목표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세부목표	• 사회적경제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요구되는 마음가짐으로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때 현장에서 어떤 업무 역량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학습단계	학습내용
도입(5분)	(지난 강의 리뷰) • 지난 강의의 핵심이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문제였음을 환기한다. (학습 목표 제시) • 이번 강의의 목표는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역량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임을 알린다.
전개 (30분)	8.1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15분) • 사회적기업가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공통의 마음가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요구되는 태도나 자세가 사회적기업가정신으로 이야기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사회적기업가정신의 공감·혁신·실용임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 내용과 하위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8.2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20분) • 사회적경제기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을 잘 수행하려면 어떠한 업무 역량이 요구하는지에 관해 알 필요가 있음을 이해시킨다. •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업무 역량이 기업가정신·문제해결 능력·조직경영 능력·대외 역량·사회적 책임감임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 내용과 하위 구성요소들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토론 (20분)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자가 내리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정의는 무엇인지, 사회적경제 기초과정 수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에 활동한다면 어떤 업종이나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중 한 두 가지 주제를 선택해 토론을 진행한다.
마무리 (5분)	• 각자 사회적경제에 관한 나름의 정의를 가져볼 것을 제안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유의사항	•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와 관련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경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깊은 성찰과 숙고를 통해 계속 반추해야 할 주제임을 확인시킨다.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발행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행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
집필	박종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은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행연도	2020년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47, 6~8층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문의	031-697-7892, edu@ikosea.or.kr

